

潭陽 龍泉寺와 刊行 佛書의 研究*

An Analysis on the Publication of Buddhism Literature in Yongcheonsa, Damyang

南 權 熙 (Nam, Kwon-H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판각된 口訣本 3종 |
| 2. 龍泉寺의 역사적 배경 | 4.1 大乘起信論疏 |
| 2.1 역사와 위치 | 4.2 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自警文 |
| 2.2 龍泉寺와 龍湫寺 | 4.3 念佛作法 |
| 2.3 龍泉寺의 규모 | 5. 맺음말 |
| 3. 시기별 간행 佛書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전라도 潭陽 지역에 있는 秋月山의 龍泉寺 또는 龍湫寺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 및 간행 서적에 대하여 서지적으로 개괄한 것이다. 이 사찰은 임진왜란 직전 한 때 지역의 중요 사찰로 그 寺勢가 컸고 1570년에서 전쟁 전까지 약 20년간 25종에 가까운 불서를 간행하여 활발한 佛事가 이루어졌던 사찰이었다. 특히 3종의 구결본과 의식류, 교육류 등의 불서가 주를 이루었다.

要語: 龍泉寺, 潭陽, 龍湫寺, 口訣本, 秋月山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records and books of Yongcheonsa, located in Damyang, Junra-do in an bibliographic aspect Yongcheonsa published about 25 kinds of Buddhism literature from 1570. Yongcheonsa performed various Buddhims acts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Buddhism literature, therefore, Yongcheonsa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emple in Jeolla-do. The collection of Yongcheonsa are mainly consisted of ; Buddhism literature of Gugyol (口訣), Ritual Kinds (儀式類) and Educational Kinds (教育類).

Key words: Yongcheonsa, Danyang, Yongchusa, Books of Gugyol, Chuwolsan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접수일: 2018년 8월 17일 최초심사일: 2018년 8월 28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9일
서지학연구, 제75집, 95-128,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5.95]

1. 머리말

이 연구는 전라도 潭陽 지역에 있는 秋月山의 龍泉寺 또는 龍湫寺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 및 간행 서적에 대하여 서지적으로 개괄한 것이다.

현재의 사찰은 그간의 사회적 변화와 전쟁 등으로 겨우 명맥을 잇는 정도로 진존하고 있으나 한 때 지역의 중요 사찰로 그 寺勢가 컸고 특히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승려와 승군이 1백 명 정도가 있었으며 임진왜란 직전의 특정시기에 20년간 집중되어 간행한 문헌이 25종에 가까운 활발한 佛事가 이루어졌던 사찰이었다.

이 사찰과 관련기록에 대한 연구는 여러 事蹟이나 地誌 등의 문헌들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담양에 관련된 地誌를 종합한 『담양문헌집』¹⁾과 비록 세분 영역의 연구이지만 龍湫寺의 역사와 간행서적을 간략하게 언급한 조사보고서²⁾도 있다. 또 간행 서적 중 일부에 대하여 국어사적 관점에서 구결문헌으로 한정하여 간략하게 검토한 연구³⁾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의 실물을 조사하여 16세기 후반 각종 불경들을 집중적으로 간행하였던 龍泉寺에 대한 기록들을 종합하고 개별 경전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징 중의 하나로 용천사 간행의 佛書는 經典에 대한 학습과 연구 및 언해의 진단계로서의 구결을 단 것과 중앙 간행 언해본의 번각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현존하는 간행 서적에 나타난 서지적 현상으로 미루어 보면 간행본에 筆寫하여 구결을 단 것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용천사본에서는 필사가 아닌 판각된 구결과 구결의 표기도 한자의 略體 형태와 완전자 형태의 구결이 함께 나타난다. 그밖에 의식에 관련된 佛書와 기본교육 및 기초적인 이론서의 간행도 많았다.

또 판각 구결은 당시에 표준적으로 인정되고 기준이 되는 출판이라는 과정을 거친 자료이므로 당시 佛經에 대한 일반화 연구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용천사에서 간행된 『佛說阿彌陀經』, 『起信本末五重』, 『圓頓成佛論』 등의 佛書を 볼 때 임진왜란 직전에는 당시의 여러 사찰과 비교할 때 활발하게 간행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출판활동은 사찰의 경제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과 인적자원이 충분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간행서적의 범주를 미루어 볼 때 松廣寺와 더불어 16세기 후반의 全南地域의 불교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찰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潭陽郷土文化研究會 編, 『담양문헌집』 (光州: 潭陽郷土文化研究會, 2004).

2) 金誠龜·申相孝·宣在明, 『潭陽 龍湫寺 기와가마터』 (光州: 國立光州博物館, 潭陽郡, 2001) 중 附錄 1 “龍湫寺 地表調査 報告”.

3) 南權熙, “潭陽 龍泉寺 刊行 口訣本 3種의 書誌的 考察,” 『古書』 제7호.

2. 龍泉寺의 역사적 배경

2.1 역사와 위치

담양의 옛날 명칭은 ‘秋子兮, 秋城, 潭州’로 불렸으며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던 龍泉寺는 『東國輿地勝覽』 卷39의 全羅道 潭陽都護府條에 의하면 全羅南道 潭陽郡 秋月山에 있으며, 『伽藍考』에서는 府의 북쪽으로 50리에 위치하고, 『梵宇攷』에서는 龍泉山에 있다고 전한다.

이 두 갈래로 불린 秋月山, 龍泉山은 시대에 따라 달리 표기되었으며 위치는 秋城의 동북쪽 20리에 있는 鎭山으로 깎아지른 石壁이 사방으로 둘러쳐져 마치 성벽과 같고 그 둘레는 9,018자로 서북방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 그 위 작은 계곡에 시내가 둘러 흐르고 또 13개소의 샘이 있다.⁴⁾ 그 중 龍淵은 秋月山 동쪽에 있는데, 祠壇이 있어 매년 춘추로 용에게 제사하고 날이 가물면 기우제를 지냈다.

한편 龍泉寺는 조선후기에 다른 이름인 龍湫寺라고도 불리며 한때 松廣寺의 末寺로서 그 이름은 간행자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壬亂後에 개명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담양군 용면 용연리 838번지 용추산 용추봉 아래에 자리하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의 말사로 있다. 『程里考』의 “方輿總志”에 의하면 烟洞寺, 菩提庵은 龍泉山의 북쪽 45리에 있고 龍泉寺는 龍湫山과 金城山 북쪽 15리에 있다고 하였다.

이 사찰의 창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분명하지 않으나 百濟 聖王 4년(526)에 信聰,⁵⁾ 惠澄⁶⁾ 스님이 창건하고 武王 25년(624)에 圓光大師가 願堂으로 삼아 중창하였다⁷⁾고 전하고 있다. 또 17세기에 작성된 담양출신의 승려 太能의 문집인 『逍遙堂集』 중간본 내용 중 “龍湫寺法堂重創記”에는 절을 세운 사람은 信揚과 惠澄이라 하였지만 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高麗時代와 朝鮮初期의 전해지는 기록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고려시대의 유물로서 靑銅金鼓인 “癸亥銘龍泉寺鉢子”⁸⁾가 1965년 여주에서 출토되었고

4)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4, “地行附錄” ‘秋月’條.

5) 寺刹文化研究院 編, 『전통사찰총서』 7;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II (서울: 寺刹文化研究院, 1996), 254에는 ‘惠聰’이라 하였으나 『逍遙堂集』의 “龍湫寺法堂重創記”와 申景濬의 『旅菴遺稿』 卷4 “龍泉寺記”와 『無竟集』에는 ‘信聰’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또 창건의 시기도 『逍遙堂集』 등에서 창건 시기를 알 수 있는 문헌이 없다고 하였다.

6) “龍湫寺法堂重創記”에는 ‘惠澄’이나 『전통사찰총서』 7;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II에서는 ‘惠證’으로 이 기록은 오류로 추정된다.

7) 寺刹文化研究院 編(1996), 254-256. ; 이 창건 시기에 대한 기록의 인용 중 『潭陽 龍湫寺 기와가마터』의 附錄 1 “龍湫寺 地表調査 報告”에서는 “삼국시대 백제 성왕 1년(523)에 신총과 혜증장로가 창건하였다”고 하면서 발굴 당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여 시기에 대한 기록이 서로 차이가 있다. 또 창건 인물과 관련하여 255에서는 ‘信聰’을 백제의 다른 승려인 ‘慧聰’으로 보고 “백제 스님으로 588년(위덕왕 35)에 일본에 부처님 사리를 전하였고 585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를 널리 전한 분”이라고 잘못 소개되어 있다. 또 창건의 시기와 비교하여도 맞지 않는다.

그 형태는 표면 중앙과 바깥에 양각의 연꽃무늬가 있고, 명문⁹⁾에는 癸亥年 4월 德達이 무게 14근 반이 나가는 銚子 1개를 제작하여 龍泉寺에 시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龍泉寺는 같은 명칭의 사찰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있었으므로 이곳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조선초기에 들어서는 1409년 覺圓이 쓴 “白巖寺轉藏法會堂司榜”¹⁰⁾에서는 전라도 長城의 白羊寺에서 고려말부터 대장경의 일부를 경전 중 매권의 초, 중, 후반의 몇 줄만을 읽고 넘어가는 의식인 轉藏法會가 1341년, 1348년, 1353년의 세 차례 이루어졌고 조선에 들어서는 1409년에 이루어졌음¹¹⁾을 기록하였다. 이 때 華嚴契 내의 前龍泉社主 法蓮이 堂頭 前兩街都僧錄大師 慈慧圓融大師 晦極公 및 四衆과 더불어 대원을 일으켜 재원을 내어 轉讀儀式을 하여 국왕의 장수와 만민의 복을 빌었다. 여기서의 龍泉社가 지역적으로 호남인 것은 백양사와의 관계로 연결지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후의 호남에서도 몇몇 지역에 같은 명칭의 사찰이 있었으므로 특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용천사와 관련되어 고려시대 때 사찰에 사용되었던 ‘社’자가 들어간 기록은 이것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 그간의 寺勢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자료에서 世祖는 1458년(세조 4) 7월 24일에 金碩에게 명하여 大藏經을 50부 印出하여 海印寺, 興天寺, 禮曹에 각 1부를 두고 그밖에 47건 내 1건을 福泉寺에 별치하고 나머지는 各寺와 상의하여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또 같은 해 9월 14일에 도승지 曹錫文이 작성한 글에서 陝川 海印寺 2건, 高靈 盤龍寺 4건 외에 다음과 같은 사찰에 배포¹²⁾되도록 하였던 바,

白巖寺(晉州)	載岳寺(密陽)	君子寺(咸陽)	雙峰寺(綾城)	雲住寺(泰仁)	福泉寺(報恩)
五臺寺	白蓮寺(安東)	菩提寺(宜寧)	成佛寺(長興)	法泉寺(務安)	地勒寺(沃川)
七佛寺	通度寺(梁山)	居祖寺(永川)	玉龍寺(光陽)	證心寺(光州)	楡帖寺(高城)
凝石寺	中方寺[]	鼎鄉寺[]	懺堂寺(茂長)	上元寺(砥平)	
龍淵寺(星州)	大菴寺[]	觀音寺(尙州)	勝蓮寺(南原)	松廣寺(順天)	
安峰寺(星州)	天龍寺(慶州)	檜巖寺(楊州)	大菴寺(海南)	萬德寺(康津)	
普林寺(靈山)	佛國寺(慶州)	道岬寺(靈巖)	下淸寺(珍原)	龍泉寺(潭陽)	

등 사찰에 각 1부를 보관시킬 때 담양의 용천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당시 대장경의 배포처가 전국의 큰 사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용천사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찰로 추정할 수 있다.

壬辰倭亂 때 逍遙 太能大師가 주지로 있으면서 僧軍을 모아 김억령 장군과 함께 연합하여 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절은 폐허가 되었으며 그 후 仁祖 8년(1630)에 太能(1562-1649)이 다시 중창하였

8)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 『의천대각국사』; 열반 900주기·11월 문화인물 기념특별전 (서울: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 2001), 97에는 ‘龍泉寺銘 靑銅飯子’로 표기하고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9) 癸亥四月日 任使德達鑄成銚子 一重十四斤 / 半 施納龍泉寺謹記

10) 朝鮮總督府 內務府地方局 纂輯, 『(增補校正)朝鮮寺刹史料』 上 (서울: 高麗書林, 1986), 175-176.

11) 李炳熙, 『高麗後期 寺院經濟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2008), 421-434.

1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55, 盜葉記 二 ‘海印寺藏經’: 이 기록에 의하면 인출된 50부 가운데 寺名 등이 기록된 배포처는 48곳으로 2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역시 같은 “龍湫寺法堂重創記”에 의하면 이 때 태능과 天覺禪德이 法殿을 1630년 봄에 중창하기 시작하고 1631년 여름에는 連珠가 盖瓦를 맡고, 玄淨¹³⁾은 단청을 담당하였으며 智鑑은 彌陀丈六像과 大樓를 조성하였고 法倫은 佛器를 마련하였다.

한편 17세기 이후의 사찰 중건에 대한 기록은 無竟子秀(1664-1737)의 『無竟集』¹⁴⁾ 卷3 “秋月山龍湫寺事蹟詞引”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 이 기록에서 용천사의 개창은 開士 信揚과 長老 惠澄 두 스님이 터를 닦고 伽藍을 세운 것으로 출발하여 고려말 국사 懶翁이 우연히 들렀다가 용의 조화로운 현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로부터 改建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사찰의 중건에 있어서 太能과 함께한 승려들의 기록은 같아서, 임진왜란에 사찰이 불타고 폐허가 되었다가 경오년(1630) 봄에 소요화상(太能)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복구에 진력하여 병인(1628)¹⁵⁾ 봄에 大樓가 완성되는 등 법당을 세우고 단청과 기와를 갖추게 되었으며 다시 여러 사람들이 각 건물의 法物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또 세월이 흘러 전각들이 퇴락해지므로 月峯大德(策憲, 1623-?)이 건물을 수리하고 禪法을 여는 등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그 후 肅宗 31년(1705)에는 智元禪師와 절의 관계자들이 재물을 모아 퇴락된 옛 건물을 고쳐 지었다. 肅宗 45년(1719)에는 신도 柳大海가 冥司를 세우고 明信은 帖을 그렸으며, 대중들과 함께 法殿을 중수하다가 세상을 떴다. 이어 英祖 6년(1730) 봄에는 기와, 英祖 7년(1731)에는 牧庵이 전심을 다하여 그간의 미진했던 부분의 완성을 추진하면서 白朋, 致浩와 寺衆까지 힘을 합하여 佛殿, 樓, 門의 단청을 칠하였고 6대의 影幀을 그려서 모셨다.

또 행장에 따르면 무경은 1731년 봄에 上足인 牧菴에게 명하여 靜觀, 任性, 圓應, 秋溪 네 화상의 진영을 그려 龍湫寺에 봉안시키게 하였고 이듬해인 1732년에는 명예를 피하여 병을 핑계로 龍湫寺에 자리하였다. 또 英祖 10년(1734) 봄에는 古鏡 등에게 명하여 芙蓉으로부터 秋溪에 이르는 5대의 眞影을 松廣寺에 봉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하여 申景濬은 『旅菴遺稿』 卷4의 1779년 3월에 쓴 “龍泉寺記”에서 그간의 佛事가 이루어진 시기를 나열하고 있다.

顯宗 5년 (1664) 甲辰	英祖 1년 (1725) 乙巳	正祖 2년 (1778) 戊戌
肅宗 26년 (1700) 庚辰	동왕 5년 (1729) 己酉	
동왕 34년 (1708) 戊子	동왕 6년 (1730) 辛亥	
동왕 45년 (1719) 己亥	동왕 50년 (1774) 甲午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佛事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문집의 “龍泉寺香閣記”에서도 향각의 건립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仁祖 13년(1635)에 중수하고 60년 간격으로

13) 申景濬, 『旅菴遺稿』 卷4, 龍泉寺記에는 ‘賢淨’으로 나타난다.

14) 無竟子秀, 『無竟集』 (任實: 新興寺, 1738), 목판본, 2권 2책.

15) 『無竟集』과 『逍遙堂集』의 해당 기록의 구체적 연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肅宗 21년(1695), 英祖 31년(1755)에도 중수하였으며 신경준이 그 글을 쓸 당시는 永平이라는 道人이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신경준의 “龍泉寺記”에 의하면 正祖 2년(1778)에 월봉의 중창에 이어 다시 큰 불사를 다 마쳐 불상과 탕화를 고치고 法殿과 冥府殿·大樓·香閣·曹溪門·瞻星閣·版殿·西庵 등의 목재가 썩은 것은 바꾸고 오래된 기와를 보수하였으며 단청도 새로 하였다. 그동안 이 불사에 관련된 인물들은 寺中에서 戒哲·明信·智元·无忍·抱琦·定如 등과 俗士로는 柳大海·柳自云·申[某] 등이 참여하여 재물을 내고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찰의 창건, 중건 등의 기록 외에도 여러 문집 등에서 확인되는 龍泉寺와 관련된 시문이 적지 않지만 지역이 확실하지 않거나 같은 이름의 다른 사찰을 제외하면 盧禎(1518-1578)의 『玉溪先生文集』 권1에 수록된 ‘遊龍泉寺 敬次李一齋韻’과 姜沆(1567-1618)의 『睡隱集』 권1에 수록된 ‘重遊龍泉寺 浩上人求詩’, 『無竟集』 권1 중의 ‘龍湫寺次洪正字呼韻’ 정도로 추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임란전까지 유지되었던 大刹로서의 규모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이후 여러 고승들이 차례로 주석을 하면서 佛事가 계속되어 18세기 말에는 그 규모를 재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의 기록은 남은 것이 많지 않고 地誌 등을 통하여 명칭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정도이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1905년 乙巳勒約 뒤 이를 비통해 하던 崔益鉉, 奇宇萬, 高光洵, 金相璣 등 50여 명이 1906년 4월 8일 이 절에서 의거를 밀약하기도 하였다. 이후의 기록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朝鮮總督府의 통제 아래 住持를 認可한 기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朝鮮總督府 『官報』

제 95호	1912년 11월 22일	住持就職認可	潭陽郡 龍面 龍湫寺 鄭南巡
제 741호	1915년 1월 25일	住持異動	潭陽郡 龍面 龍湫寺 鄭南巡 → 金應祥
제1047호	1930년 7월 1일	住持異動	潭陽郡 龍面 龍湫寺 金泰三 → 李吉文
제2032호	1933년 10월 16일	住持異動	潭陽郡 龍面 龍湫寺 李吉文(재임)
제3099호	1937년 5월 18일	住持異動	潭陽郡 龍面 龍湫寺 李吉文 → 姜得秀
제4011호	1940년 6월 6일	住持異動	潭陽郡 龍面 龍湫寺 姜得秀(재임)
제4435호	1941년 11월 6일	住持異動	潭陽郡 龍面 龍湫寺 山本得秀 → 金澤圭烈

이러한 일제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다시 사회 혼란과 전쟁의 와중에서 1949년 공비들이 이 절을 점거하자 국군에 의하여 전략상 소거 당하였고 또 6.25전쟁으로 더욱 파괴되었다. 1961년에 이르러 본래의 절터에서 위쪽으로 300미터 떨어진 곳에 4칸의 초막과 법당을 짓고 중수하여오다가 근자 2000년에 다시 천불전 법당과 요사채 각 한 채를 지어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비록 과거의 사찰 형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절 부근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38호로 지정된 逍遙堂塔, 月波堂塔 그 외 逸名僧塔 3구 등의 부도탑군이 있으며 부근에는 옛 암자터가 몇 군데 남아있다.

2.2 龍泉寺와 龍湫寺

이 사찰의 이름이 龍泉寺로 전해져 왔지만 기록에 따라 달리 전하고 있어 약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① 靑莊館全書 叢葉記	潭陽	龍泉寺	世祖朝搦印節目
② 東國輿地勝覽	秋月山	龍泉寺	成宗-中宗年間
③ 眉巖日記	潭陽	龍泉寺	宣祖代
④ 逍遙堂集		龍湫寺	仁祖年間
⑤ 無竟集	秋月山	龍湫寺	肅宗年間
⑥ 伽藍考	龍泉山	龍泉寺	府의 북 50리
⑦ 太古寺法	秋月山	龍泉寺	松廣寺의 말사
⑧ 韓國寺刹全書		龍泉寺와 龍湫寺는 같은 절임	

이와 같이 17세기까지 龍泉寺로 불리다가 이후 龍湫寺란 이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은 기록으로 볼 때는 正祖 초기까지도 龍泉寺로 기술하고 있음으로 보아 그 명칭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龍泉寺를 玉泉寺라 오인하고 있는 경우¹⁶⁾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玉泉寺에서 간행된 문헌은 1582년의 「僧家禮儀文(僧家禮懺文)」과 1710년의 「妙法蓮華經」 등이 있다.

- ① 1582년 「僧家禮儀文(僧家禮懺文)」
- ② 1710년 「妙法蓮華經」
- ③ 1795년 「逍遙堂集」
- ④ 1800년 「逍遙堂集(重刊)」

여기서의 玉泉寺는 이미 16세기의 「眉巖日記」 등의 기록에서 같은 시기, 같은 작업에 동시에 두 사찰명이 언급되고 두 곳 모두 많은 승려가 살았던 별개의 사찰로 확인된다.

이 용천사가 위치한 담양 부근에는 크고 작은 사찰이 여러 곳이 있어서 산재된 사찰이나 寺址 중에는 瑞峯寺址(남면), 龍興寺, 彥谷寺址(무정면), 開仙寺址(남면), 玉泉寺址(대덕면), 고서면에는 高山寺址, 永遠寺址가 있고 대전면에는 極樂寺址 安心寺址, 神光寺址, 覺時寺址 등이 있다. 그 중 추월산에는 烟洞寺와 菩提庵이 있으며 金正浩의 「大東地志(1864)」와 같은 문헌에 따라서는 龍泉山을 따로 언급하고 龍泉寺에 龍沃이 있다는 기록도 있다.

이 가운데 菩提庵은 子秀의 「無竟集」에서 無學이 창건하였지만 丁酉再亂때 폐허가 되었고 丙午 [1606]년에 信贊이 중창한 곳이라는 “秋月山菩提庵記”¹⁷⁾의 記文이 남아있다.

「潭陽府邑志(1815)」와 「昌平邑誌」에서는 추월산은 부의 동북 20리, 용천산은 북 40리로 구분하

16) ①, ③, ④는 金誠龜·申相孝·宣在明(2001), 110의 ‘담양 용추사 간행 불전 목록’에 포함됨.

17) 「無竟集」, 無竟集文稿 卷2, “秋月山菩提庵記”

였고, 『潭陽府邑志(1871)』에서는 龍泉寺를 북쪽 50리 거리인 용천산에 있다고 하였다. 다만 『昌平邑誌』에서는 龍泉寺의 이름이 龍湫寺로 달리 기록되어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용천사의 중건의 내력을 기록한 子秀 즉 無竟도 그의 행장에 따르면 1699년에서 1711년 사이에 龍華庵(獅子山), 長佛庵(母岳), 瑞雲(清涼), 西窟, 龍湫(秋月) 龍藏(雲住) 등을 옮겨 다녔다¹⁸⁾는 언급에서 그가 쓴 “秋月山龍湫寺事蹟詞引”과 문인 懷瓊이 무경의 행장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龍湫寺’라는 이름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龍湫寺라는 명칭은 『逍遙堂集』과 『無竟集』에 수록된 내용 등으로 추정해 볼 때 늦어도 소요당이 입적한 1649년 이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龍泉寺라는 명칭이 함께 통용되었을 것으로 1779년 申景潛이 쓴 “龍泉寺記”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한편 용천산 또는 추월산¹⁹⁾을 중심으로 하는 주위의 불교문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용천사를 비롯한 주변 사찰 기록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자료는 柳希春의 『眉巖日記』이다. 그 내용 중에는 그가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고향인 담양에 내려와서 생활한 1575년 11월의 기록에서 文殊寺에 昌平 유생 2인이 찾아왔다는 것이나 같은 달 24일에 다음해 2월에 玉泉寺에 가서 四書를 강론하자고 鄭參奉, 許濟 두 사람과 약속한 사실 등에서도 주변 사찰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수사에는 아들인 光延이 승려 淸進에게 『類舍』 등 기초 학문을 배우고 있었고, 光先에 이어 2월말에 興文도 올려보냈다는 것으로 보아 자주 왕래하였던 곳으로 보인다. 이들 기록 가운데 1576년 3월에는 옥천사에서 70명의 중을 데려와 흙을 이기는 등의 작업에 동원되었던 내용도 있다.

이 사찰의 명칭과 관련하여 각종 사료, 地誌 등에서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재된 지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중 기록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곳으로 경북 豐基에 있는 용천사와 함평의 용천사가 있다. 풍기의 용천사는 조선중기까지 보관해오던 高麗 太祖의 畫像을 1576년 6월에 奉審하라는 명이 있어 軍을 동원하여 腰輿에 싣고 麻田의 崇義殿으로 옮겼다. 또 다른 사찰로 咸平郡 용천사는 신라때 行思에 의하여 개창되었다가 고려 충렬왕 1년(1275)에 중수되었고 조선시대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었다가 仁祖때 重修되었다. 이후 중수를 거듭하였지만 6.25와 1951년의 군 작전으로 다시 전소되었다가 1990년 후반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찰로서²⁰⁾ 본 연구 대상의 사찰과는 다르다.

또 함평의 용천사 외에도 담양 용천사에 활발하게 출판활동이 있었던 비슷한 시기인 1574년 전라도 金溝의 母岳山 金山寺에서 간행한 『請文』 등을 1577년에 飜刻 간행하였던 전라도 臨陂 鷲城山 龍泉寺와의 구분도 필요하다.

18) 『無竟集』, 無竟集文稿 卷3, 門人 懷瓊 錄 “無竟堂大師行狀”

19) 同治 10年(1871) 『潭陽府邑誌』의 山川(條)에는 秋月山을 담양부의 主脉으로 기록하고, 龍泉山은 담양부의 북쪽 45리에 위치하며 추월산으로부터 이어져 나온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四; 全羅道 ① (서울: 亞細亞文化史, 1983), 381.

20) 咸平郡·全南大學校博物館 編, 『龍泉寺; 발굴·지표조사 및 정비복원 기본계획』 (광주: 咸平郡·全南大學校博物館, 2001).

2.3 龍泉寺의 규모

柳希春의 『眉巖日記』 1575년 10월 27일 기록에 의하면 유희춘이 벼슬을 쉬는 동안 고향인 담양으로 내려오면서 집과 서재를 다시 짓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날부터 龍泉寺의 중이 처음 와서 들보·서까래·기둥 등 재목을 운반하기 시작하여 그 동원된 수가 80명이 되었다. 그 다음날인 28일에도 龍泉寺의 僧軍 95, 6명과 玉泉寺의 중 4명을 합하여 100여 명이 재목을 거의 다 운반했다. 뿐만 아니라 29일에도 淸冷寺의 중이 흙을 운반하고 더 고르는 일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정부 고관의 사적인 일에도 해당지역의 주변 사찰에서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이러한 僧軍을 포함한 승려 숫자를 보면 용천사의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11월 1일에도 담양군수는 다음해 2월에 기와를 구워 만들 때도 승군을 쓰겠다는 유희춘의 말에 용천사와 옥천사의 중을 보내주어 만장 정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의도 하였고 이후의 기록에서도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무렵의 용천사에 거주하였던 승려와 주변의 인물로 불사에 참여한 시주들에 대한 간접인 자료로 宣祖 13년(1580)에 조성된 ‘潭陽秋月山 龍泉寺大鐘’²¹⁾에 새겨진 인명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萬曆八年庚辰八月日 / 全羅道潭陽府秋月山 / 龍泉寺上大鐘 [] []百餘斤 /
 安崔勺先 朴春永 高千連 崔信 姜正太 洪非芑非 金大云 金[]連 宋若番 溫應伊
 崔千 吳金浩 金次鋌
 持音 明悟 / 首僧 天寶 / 持寺 太田 / 直批 明立 / 幹事 三軒 / 畫員 成堂 眞玉 文幹
 化主 天引 戒生 性元 莫夫之 羅州非里傳 宋順伊 全州白家 金千永 洪允伊 餘朴只
 馬知伊 道見 石峰 宋道彥 信全 道信 儀女 學文 知還 一訓 南履 性林 三晝
 善時 道奉 白仁 道不 信凡 承明 應[] 夫暉 明伊 能初 惠信 一朱 萬德 放守
 守玄 崇戶 引玉 氏田 明云 玉寶 明寶 大旁 安希 敬心 山來 潭水 性淡 光寶
 彥中 云玉七
 諸緣記 / 大施主 萬順[乃]仁 / 大施主 金吉同 / 大施主 太田 /
 泰仁 柳戒通 郭秀仁 郭武萬 金自明 安甲 洪云方 性照 德宗 李乃斤

이 기록에서 종의 구조에 職任을 맡은 승려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화주 등에는 용천사의 승려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 5년 전 유희춘의 작업에 동원되었던 약 100명의 승려 중 일부일 수 있다.

이밖에 16세기 용천사에서 간행하였던 佛書들의 권말에 수록된 출판에 관련되었던 승려들의 명단에서도 사찰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예로 1537년에 간행된 『妙法蓮華經』²²⁾의 권4에는 自敏을 비롯하여 122명, 권7의 끝에는 민간의 시주자를 제외하고 寶訓, 熙惻, 法崇(권4 중복), 雲密, 普言, 熙元, 宗密, 梵行, 孜還 등이 거주하던 승려들로 추정되고 특히 ‘行者 恩丁’까지

21) 보물 제1699호, 높이 118cm, 너비 69cm,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안정사 소재.

金和英, “安靜寺所藏 萬曆八年銘 銅鐘,” 『考古美術』 제9권 제11호(통권 100)(1968. 11), 494-495.

; 한국 전통적인 종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상에는 반과된 음관이 있고 보살상이나 비천상 등의 장식은 없다.

몸통에는 삼중의 동심원이 있고 중앙에 卍자와 두 번째 원내에는 양각된 6자의 梵字에 연주가 돌려져 있다.

22) 戒環 解, 『妙法蓮華經』 권4, 권7 (潭陽: 龍泉寺, 1537), 木板本(乙亥字中·大字 翻刻本), 啓明大 所藏本

기록되어 있는 점은 이 명단 속의 인물들이 사찰의 소속 승려라고 미루어 짐작된다.

3. 시기별 간행 佛書

앞의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龍泉寺 刊行의 佛書를 볼 때 壬辰倭亂 직전에는 당시의 어느 사찰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대단히 활발한 간행사업이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간행서적을 참고자료나 실물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刊行時期別 目錄

순번	서명	간행기록	비고
1	妙法蓮華經	嘉靖十六年 歲在丁酉(1537) 暮春日 太虛堂 天瑞 謹跋	
2	五大眞言	嘉靖十七年(1538) 季夏日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重刊	附: 靈驗略抄
3	妙法蓮華經	隆慶四年 庚午(1570) 四月日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瀑布菴開板 移龍泉寺	
4	大乘起信論疏	隆慶六年 壬申(1572) 仲春 全羅道 潭陽地 龍泉寺 開板	口訣
5	賢首諸乘法數	隆慶六年 壬申(1572) 月日 潭陽地 龍泉寺 開板	
6	誠初心學人文 의	隆慶六年 壬申(1572) 孟冬 全羅道 潭陽地 龍泉寺 開板	口訣
7	訓蒙要鈔	隆慶六年 壬申(1572) 全羅道 潭陽府 龍泉寺	합철: 법어, 몽산화상법어 약록(1573)
8	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	萬曆元年 癸酉(1573) 四月初八日 全羅道 潭陽府地 秋月山 龍泉寺 新刊	한글 구결본
9	蒙山和尚法語略錄	萬曆元年 癸酉(1573) 孟夏 初八日 全羅道 潭陽府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法語와 합본 연해
10	大藏一覽集	萬曆元年 癸酉(1573) 四月初八日 全羅道 潭陽府 秋月山 龍泉寺 新刊	
11	諸佛菩薩腹藏壇儀式造像經	萬曆三年 乙亥(1575) 仲春上澣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板	
12	念佛作法	萬曆三年 乙亥(1575) 仲春上澣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口訣
13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萬曆四年 丙子(1576)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14	佛說阿彌陀經	(陰刻) 萬曆五年 丁丑(1577)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15	六祖大師法寶壇經	萬曆六年 戊寅(1578) 十二月日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16	佛說觀無量壽經	萬曆六年 戊寅(1578) 仲夏中元 潭陽府 龍泉寺 開刊	
17	菩提達磨四行論	萬曆七年 己卯(1579) 五月中元 潭陽府 龍泉 開板	
18	起身本末五重 最上乘論	萬曆十年 壬午(1582) 孟秋既望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全羅道 潭陽府 秋月山 龍泉寺開板	
19	禪源諸詮集都序	萬曆十年 壬午(1582) [月日] 全羅道 潭陽 龍泉寺 開刊	
20	圓頓成佛論	萬曆十一年 癸未(1583) 七月日 秋月山 龍泉寺 開刊	
21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萬曆二十一年 癸巳(1593) 三月上旬畢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22	月峯集	康熙四十二年 癸未(1703) 二月日 全羅道 潭陽 北嶺 秋月山 龍湫寺 開刊	
23	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 欲鬘清淨熾盛思惟如意 寶印心無能勝摠持 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앞면) 乾隆癸亥[年](1743) 正月 潭陽 北嶺 龍湫寺 開板 (뒷면) 乾隆癸亥年(1743) 孟春日 潭陽 龍湫寺 開板	
24	大方廣佛華嚴經疏鈔	-	

이상의 간행된 佛書로 미루어 壬亂前 약 20년 동안에 25종을 간행하는 비교적 활발한 출판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후기 龍湫寺의 이름으로 간행된 것은 시기를 달리하는 『月峯集』 정도이다. 특히 口訣本 『誠初心學人文』과 『念佛作法』 및 언해본의 번각간행 등에는 法連 比丘의 施主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의 언해본에서도 法連은 『法語』와 『蒙山和尚法語略錄』 등의 간행과 儀式類 및 이론서, 기본 교육서가 당시 출판을 주도하던 사찰의 승려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1 妙法蓮華經 (1537년)

이 책은 戒環 解로 된 목판본이며 저본은 乙亥字의 中·大字本을 飜刻한 것이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9행중 대자는 16자, 중자는 21자의 배열이며 版心은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에 판심제는 ‘法華’이다.

제7권 말의 발문은 中宗 32년(丁酉, 1537년) 3월에 太虛堂 天瑞가 썼다. 그 발문에 의하면 『法華經』이 수행에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鑄字²³⁾로 찍은 舊本이 오래되었으므로 목판으로 새로 새겨 널리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승려와 단월이 힘을 합하여 1536년 1월에 시작하여 1537년 3월에 판각을 마친 후 전라도 담양 추월산 용천사에 판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大明律』²⁴⁾ 100여 판도 重刻하여 판청에 납입하였다.

* 권말 발문: 嘉靖十六年 歲在丁酉 暮春日 太虛堂 天瑞 謹跋

3.2 五大眞言 (1538년)

이 책은 개인소장과 송광사박물관 소장본 등이 있다. 판식은 四周雙邊에 半匡의 크기는 17.5×14.2cm에 界線이 있고 본문은 9행, 글자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版心은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다. 권말에 한문의 『靈驗略抄』가 있고 끝에 中宗 33년(1538)에 중간하였다는 간기가 있다.

이 책의 표기는 고려시대의 판본에 없는 한글음을 병기한 것으로 편찬 당시 仁粹大妃의 명으로 唐本을 얻어 諺音釋을 추가하여 成宗 16년(1485)에 四十二手眞言, 神妙章句大多羅尼, 隨求即得多羅尼, 大佛頂多羅尼, 佛頂尊勝多羅尼의 五大眞言을 梵, 諺, 漢의 세 가지 문자로 병기하여 간행한 자료이며 권말에는 『靈驗略抄』가 합철되어 있다. 龍泉寺本은 1485년본의 번각본으로 지금까지 6-7종의 번각본이 알려져 있다.

* 권말 간기: 嘉靖十七年 季夏日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重刊

23) 이 때의 鑄字本은 세조때 주조한 乙亥字의 대자와 중자로 1461년 무렵에 찍어낸 『法華經』을 지칭한다.

24) 이 발문에서 언급된 『大明律』은 『攷事撮要』의 책판목록 潭陽條에 의하면 『大明講解律』에 해당하지만 현존하는 판본 중에는 『大明律講解』만이 확인되고 같은 제목은 보이지 않는다.

3.3 妙法蓮華經 (1570년)

이 책의 판본은 鳩摩羅什 譯의 목판본으로 15세기 초에 간행되었던 成達生 書寫版의 계열을 번각한 것이다. 책의 간행 과정은 斗員이 목판을 만들고 處瓊은 化刻手로, 玉連은 供養主로 참여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서체는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판을 바탕으로 번각한 것으로 版式은 四周單邊에 10행 20자의 배열이고 판심에는 上下黑魚尾가 있다. 그러나 서체는 저본에서 보다 ‘以, 爲’ 등 일부 글자들이 약간 변화된 모습을 띠고 있다. 책의 간기에 의하여 宣祖 3년(1570) 4월에 같은 주월산에 있는 瀑布菴에서 간행하여 용천사로 옮겨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말 기록에는 斗員과 處瓊 등이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 것과 돌아가신 부모가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면서 嘉靖 49년(45년의 잘못) 丙寅(1566) 1월 24일에 懺結하고 6월 18일에 시작하여 1570년 4월 20일에 마쳤다고 기록하였다.

이 책의 간행 당시 참여한 각수는 處瓊이며 作板은 斗員, 供養은 玉連 比丘가 담당하였다. 당시 處瓊은 용천사의 다른 판본의 출판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아 폭포암도 용천사 인근의 사찰로 추정할 수 있지만 후대의 地誌類에서는 寺名을 확인할 수 없다.

또 다른 개인소장의 판본 중에는 권4, 7의 말미에 ‘萬曆五年 丁丑(1577) 青日 化主 玉峻²⁵⁾이라는 목서에 의하여 원간본을 간행한 후 7년 뒤에 옥준에 의하여 다시 인출되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 권말 간기: 隆慶四年 庚午四月日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瀑布菴開板 移龍泉寺

3.4 大乘起信論疏 (1572년)

이 책은 상하 2권 1책의 목판본으로 초주갑인자로 찍은 책을 번각한 것이다. 자료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고 10행 17자를 배열하였다. 半匡은 23.8×16.8cm의 크기이며 版心은 上下內向黑魚尾(間混 三葉)의 양식과 版心題로 ‘起信論’이 새겨져 있다.

한국에서 유통된 『大乘起信論疏』는 元曉와 法藏이 저술한 것이 많지만 그중 이 책은 法藏이 述하고 宗密이 錄한 것으로 책의 편성은 상권과 하권이 각각 卷一, 卷二로 다시 나뉘어져 있다. 이 책의 간행 목적은 권말의 御製跋에 의하면, ‘世祖가 왕자를 잃고 여러 경전을 간행하였지만 특히 『般若心經』을 항상 중요시 하였고 다행히 宗密이 注解한 『起信論』을 구하여 인쇄하고 널리 배포하여 죽은 왕자가 이를 보고 개안하여 점점 妙德을 성취하기를 바라면서 부처도 이런 간절한 소원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世祖 3년(1457) 11월에 初鑄甲寅字로 찍었던 책을 宣祖 5년(1572)에 다시 翻刻한 것이

25)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편, 『(金敏榮所藏)古書目錄』(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45.; 鄭王根,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2012), 61.

다. 飜刻의 刊記는 ‘卷上之一’의 끝에 隆慶 6년 壬申(1572) 2월에 ‘道熙靈駕’를 위한 시주로 간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권말에는 供養大施主로 朴仇知 兩主, 供養施主로 玉靈 比丘를 비롯한 60여 명의 승려와 40여 명의 신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鍊板에 敬揮를 비롯한 5인, 化主로 志安 외 1인, 校正에 智仁, 戒峯이 참여하고 그밖에 飯頭, 執頭, 別座로 나누어져 있다. 권말에는 處敬, 祖仁, 空紙, 法云, 海寶, 杜峯, 先修, 靈修, 能修, 學文을 포함한 刻手秩 12명 등 관각에 참여한 인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본문에 한자의 略體口訣이 새겨져 있다는 점으로 이는 甲寅字本에 공부를 하면서 달았던 것을 그대로 살려서 목판으로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결까지 관각하여 간행한 예는 많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공부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권말 간기: 隆慶六年 壬申 仲春 全羅道 潭陽地 龍泉寺 開板

3.5 賢首諸乘法數 (1572년)

이 책은 중국 唐代의 賢首가 처음 엮은 것이 있었으나 전해지지 않았고 明代 行深이 다시 編集하여 1427년 중국에서 간행되었다.

분량은 11권 1책(77장)으로 권1부터 권10까지 각 숫자에 해당하는 명수를 함께 모아 설명하였고 권11에서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를 일괄 수록하였다. 국내에 전존된 ‘法數’는 원나라 때 승려 可遂가 편집한 것을 恭讓王 1년(1389)에 無學이 중간한 『藏乘法數』가 있다. 그러나 『諸乘法數』는 『장승법수』에 비하여 수록한 범위가 넓고 편집체제도 체계적이며 검색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후 국내에서 간행된 전래본은 대부분 『제승법수』의 번각계열로 나타난다. 이 책의 권말의 기록에 의하면, 『三藏法數』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傳本이 적어서 重刊의 뜻을 내어 諸乘과 藏乘의 법을 별도로 편집하고 간행하여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한다고 하였으나 더불어 본문 중에 33자의 빠진 글자가 있고 편찬된 것 중 圓點部分은 본래 1장이 없어 전하지 않으므로 後代人의 주의를 바란다는 것으로 볼 때 완전하지 못한 판본을 底本으로 간행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용천사에서 번각된 이 판본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없으며 판면에는 行字數가 不定이고 版心은 上下內向花紋黑魚尾의 형식이다. 권수에는 洪武 丁卯(1387)에 天台 梵翹가 쓴 ‘重編賢首法數序’와 宣德 丁未(1427)에 쓴 序가 있고 권말에는 ‘藏乘法數抄錄’과 ‘不思議和尚歸寂訣’이 합철되어 있다. 이 후 끝부분의 하단에 소자로 ‘證師 慧澄, 處敬 刀, 祖能 刀’라고 하여 간행과 관련된 인물로 각수 등을 밝혀두었다. 간기에 이어 간행과 관련된 기록으로 大施主는 敬連比丘, 崔公伊兩主, 孔之, 天俊, 見熙, 朴仇知, 金己, 金遠斤, 閑令, 年王 등이며 化士는 戒嚴이었다. 이 책을 간행하기 위하여 登梓本을 쓴 인물은 儀軒이었다.

* 권말 간기: 隆慶六年 壬申 月日 潭陽地 龍泉寺 開板

3.6 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自警文(合編, 1572년)

이 책은 세 종류의 책을 종합하여 편찬하였지만 시대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나누어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각각의 수록분량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蒙山和尚法語略錄』이나 그 밖의 다른 내용과 합철되어 빈번하게 간행되었다.

3.6.1 誠初心學人文

이 책은 知訥 48세(太和 5年, 乙丑, 1205)때의 저술이며 修禪社(順天 松廣寺)의 낙성과 함께 同社의 日用清規로 선포한 것이다. 당시 知訥은 禪教一致를 위하여 『真心直說』, 『修心訣』 등 定慧雙修를 주장하는 여러 책을 저술하는 중이었으며 그 가운데 유일한 清規로서 이 글이 만들어졌다. 그 배경에는 당시의 고려 불교가 안일과 명리에 빠져있었으므로 지눌은 새로운 禪風을 일으켜 보고자 曹溪山에 修禪社를 세우고 출입하는 승려와 修禪社의 紀綱을 세우고자 저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이 전국의 사찰에 일반화된 것은 朝鮮에 들어와 1397년에 太古普愚의 제자이자 興天寺 住持였던 尙聰이 太祖의 명을 받아 全國 寺院의 清規로 시행된 때부터이다.

그 수록된 내용은 佛門에 들어온 初心者의 범절과 僧堂生活에서 지켜나가야 할 일, 공부하는 태도 등을 실한 것이다. 즉 修行儀範인 律文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간추려 사원생활에 알맞게 구성한 책이다.

현재 불교 강원에서는 元曉의 『發心修行章』, 野雲의 『自警文』과 함께 初入門者의 필독서로 쓰이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初心者 警戒篇·一般僧侶 警戒篇·禪房 修行者 警戒篇’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3.6.2 發心修行章

이 책은 新羅때 元曉가 불교에 처음 입문한 沙門을 위하여 저술한 것으로 發心에 관한 내용이 총 706자의 四言絶句로 구성되어 있다. 저술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다만 원효의 생존시기인 617-686년 사이의 후반부일 것으로 추정되며 『誠初心學人文』과 함께 출가한 사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沙彌科의 教科目이 된 것은 淸虛의 法孫 月潭禪師가 한국불교의 이력을 정리할 때 교재로 편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부분 책의 글은 짧은 분량이지만 그 내용은 序分과 正宗分, 流通分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첫째, 離欲苦行과 捨欲苦行을 나타낸 것으로 부처님의 무수한 劫의 바다에서 욕심을 끊고 寂滅宮의 장엄을 위하여 苦行을 하시는 분으로 표현하여 수행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깨우치고 있다.

둘째, 참된 修行者가 되라는 것으로 大乘菩薩行의 실천이 세속과의 단절과 극복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자기반성과 함께 늡으면 수행하기 어려우니 發心修行이 시급함을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과 같이 「發心修行章」은 수행인이 부처될 마음을 일으켜 거룩한 행을 닦는 긴요한 말로서 문장이 평이하고 교훈적이다.

3.6.3 自警文

이 책의 形態書誌的인 특성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없으며 10行 16字에 口訣은 小字의 雙行으로 표시되어 있다. 版心은 上下白口에 上下內向三葉黑魚尾를 기준으로 黑魚尾와 四瓣魚尾가 반복하여 보인다. 아래의 魚尾에는 ‘규, 인’ 등의 한글의 刻手名 표시도 있다. 또 보존의 상태는 앞의 2張과 아래부분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다.

이 글의 저자인 野雲比丘는 생몰년이 미상이나 대체로 高麗後期 忠烈王代의 고승으로 懶翁惠勤의 제자이며 俗名은 珥, 法名은 覺牛, 號는 夢嚴老人이었다. 특히 涵虛와 많은 교류를 가졌으며 저서로는 저술의 시기를 알 수 없는 「自警文」 1卷만이 전할 뿐이다.

그러나 당대에 있어서 野雲의 명성은 懶翁이 입적한 후 그의 도반인 覺雄, 仲英과 함께 중국으로 유학 갈 때 權近과 李崇仁이 ‘野雲松’을 지어줄 정도로 명망이 있었다.

서명에 나타나는 ‘自警’이란 자신을 참회하고 깨끗한 行을 닦으며 마음을 살펴서 몸과 입을 항상 경계하는 것이다. 즉 수행자가 스스로 警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서술한 책이다.

수록된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론에서는 주인공을 일컬으며 모든 허물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한다. 본론에서는 열 가지 門을 들어 警責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밝힌 열 가지를 닦아서 용맹정진하여 속히 正覺을 이루어서 還道衆生하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구성체제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合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포함되어 다른 책과는 내용이 다르다. 즉 기본적으로 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自警文의 체계에 「法語」 즉 「四法語」와 「蒙山和尚法語略錄」이 추가되고 「蒙山和尚法語略錄」에는 示古原上人, 示覺原上人, 示惟正上人, 示聰上人, 撫字十節目, 休休庵主坐禪文이 차례로 있으며 판본이 많지 않은 「訓蒙要鈔」, 「大彌陀懺」, 「廬山優曇和尚勸修淨業語錄」 등이 卷末에 合綴되어 있다. 이 중 「訓蒙要鈔」, 「大彌陀懺」은 간혹 별본의 형태로 제본되어 전하는 것도 있다.

이 책의 간행은 「法語」가 끝난 뒤 ‘大施主 法蓮 比丘’, ‘書 義軒’의 기록에 의하여 宣祖 5年(1572) 法蓮의 시주와 義軒이 版下本을 써서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蒙山和尚法語略錄」이 끝난 뒤에는 시주자로 法蓮과 더불어 天像 比丘가 첨가되어 있다.

* 권말 간기: 隆慶六年 壬申 孟冬 全羅道 潭陽地 龍泉寺 開板

3.7 訓蒙要鈔 1권(1572년)·法語 1권·蒙山和尚法語略錄 1권, 합 1책 (1573년)

이 책은 日本의 長崎縣 對馬市 慶龍院에 소장된 판본²⁶⁾도 있으며 3종의 다른 내용이 한 책으로 합철되어 있다. 그 중 「訓蒙要鈔」는 찬자가 불명 또는 조선 초 승려인 지엄으로 전해지고 있고 불교 교리의 요긴한 점을 간추려 편집한 것이다. 또 「法語」는 조선 전기의 信眉가 譯訣하였고 「蒙山和尚法語略錄」은 원나라 승려 蒙山德異가 찬한 것이다.

책의 간기는 隆慶六年 壬申(1572) 全羅道 [潭陽府] 龍泉寺에서 간행한 것이라 조사되어 있지만 「法語」와 「蒙山和尚法語略錄」이 합철 간행된 자료에서는 그 이듬해인 1573년의 간기가 확인된다.

「訓蒙要鈔」의 내용은 장로화상이 생각하는 인연에 관한 내용인 “長老和尚種善因緣之圖”, 선원의 집단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다룬 “白丈和尚清規法”, 묵언과 공양시의 절차 등을 다룬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이 합철되어 있다. 이 책의 다른 판본 중에는 宣祖 9년(1576) 오대산 월정사에서 德黜이 글씨를 쓰고 智玄과 妙嚴이 판각한 목판본이 있다.

3.8 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 (한글 口訣本, 1573년)

이 책은 佛陀多羅가 번역하고 宗密이 疏鈔한 것으로 조선시대 초간본은 금속활자인 乙酉字로 간행하였던 것을 목판으로 다시 번각한 판본이다. 내용은 지고한 깨달음의 圓融不二한 경지인 ‘圓覺’을 頓教的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단계적으로 漸教的 측면에서 다루어 불교 수행에 기본적인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책의 판본은 본문에 구결을 달아 乙酉字로 찍었던 판을 번각한 것으로 판식은 四周單邊에 半匡은 19.0×13.5cm로 본문 중 界線이 있고 6행 13자의 배열에 小字는 雙行이며 판심은 上下內向黑魚尾이다. 卷上, 下의 권말의 간기에 의하여 宣祖 6년(1573) 4월 8일에 간행한 것으로 같은 날에 「大藏一覽集」, 「蒙山和尚法語略錄」 등과 함께 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의 京都 陽明文庫에 소장된 판본에 의하여 참여한 각수²⁷⁾를 확인하면 道彦, 處瓊, 義敬, 性坦, 法雲, 義軒, 祖仁, 德裕, 靈守, 祖能, 萬熙, 上岑, 玉軒, 禪修, 一正, 義元, 道湜, 太峻, 戒根, 敬熙, 智揖, 戒祖, 印全, 正云, 守行, 云水, 坦衍, 天靜, 玉罔, 慈云, 印眞, 熙寶, 信仁, 攄玉, 應眞, 惠英, 祖雄, 奇玉, 元印 등이며 이들이 새긴 각 장의 어미에는 이름의 한자 한 글자나 한글 표기가 다수 새겨져 있다.

또 이 판의 간행에 시주한 인물은 그 전 해인 1572년에 「大乘起信論疏」를 간행할 때 참여한 대표 인물인 朴仇知 兩主와 玉靈 比丘를 포함한 16명(비구 8, 민간인 8), 變相施主 有福只 등이다.

* 卷下末 刊記: 萬曆元年 癸酉 四月初八日 全羅道 潭陽府地 秋月山 龍泉寺 新刊

26) 藤本幸夫, 「朝鮮朝刊本刻手名集」 第2版 (富山: 富山大學人文學部, 2007), 34.

27) 藤本幸夫(2007), 164.

3.9 蒙山和尚法語略錄 (1573년)

『蒙山和尚法語略錄』은 고려 말의 승려 普濟尊者 懶翁和尚이 忠定王 2년(1350), 중국 平江 休休庵에 있던 원나라 승려 蒙山 德異를 찾아보고 돌아왔을 때, 몽산화상의 법어를 약술하여 기록해 온 것을 후에 엮은 책이다. 저자인 몽산화상 德異는 원나라 때 臨濟宗 楊岐派 승려로 俗姓은 盧씨이며 호는 蒙山이고, 古筠比丘로도 알려져 있고 그는 고려의 승려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

이 책의 앞부분에 『法語』(권말에는 四法語로 표기)의 언해도 함께 수록된 책이며 본문 중에 반치음과 방점 등이 그대로 번각된 것으로 1472년 仁粹大妃가 대대적으로 印經事業을 할 때 200부가 印出된 것의 翻刻本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원나라의 高僧인 蒙山의 法語 6편을 高麗의 普濟尊者가 초록하고 끝에 자신의 ‘元覺悟禪人法語’ 1편을 붙인 것으로 한글로 口訣한 다음 國譯을 병기하였다. 이 책의 간행에는 金末乙祥 兩主, 金松乙伊 兩主, 林云伊 兩主, 者斤伊 兩主, 金禹鼎 兩主, 金世柱 兩主, 申石丁 兩主 등이 施主로 참여하고 있다.

형태적인 면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판본과 비교하면 板面이 전체적으로 줄어 있고 上下內向의 黑魚尾에 어미속에는 ‘元, 通, 火, 行’으로 표시된 刻手名의 일부가 보인다.

이 책은 宣祖 6년(1573) 4월 8일에 간행한 것으로 같은 날에 『大藏一覽集』,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언해)』과 같이 출판되었다. 본문의 글자와 한글 표기, 방점 등은 원본에 충실하게 번각되었다. 『몽산화상법어약록』에 대한 언해는 조선 세조 때, 왕명에 의해 慧覺尊者 信眉로 하여금 언해 작업이 이루어졌다.

판식은 四周雙邊에 본문은 界線이 없는 8행 17자(한자 및 한글 포함)이며, 토와 주석은 두 줄로 적었고 어미는 上下內向黑魚尾에 판심계는 ‘法語’라 기록되어 있다. 본문의 역해는 매 줄마다 1자를 내려 썼는데 이는 16자(한자 및 한글 포함)씩이다. 저본의 간행과 관련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 수 없으나, 다른 초간본과 비교할 때 권수면에 譯解者 표시가 삭제되어 있고 金守溫의 발문은 없는 후대의 번각본이다.

용천사의 판본처럼 원간본을 번각한 것으로는 中宗 16년(1521) 금강산 楡岾寺, 1523년 풍기 石輪庵, 1525년 황해도 深源寺, 1543년 진안 中臺寺의 간본이며, 大文의 分段과 행자수를 달리하여 간행한 것은 1517년 충청도 孤雲寺, 1535년 영변 水鉢庵의 판본 등이다. 대체로 후자를 따르되,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지양한 간본은 宣祖 10년(1577) 순천 松廣寺板인데, 이 판의 특징은 구개음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용천사판은 法連比丘 坦熙, 行靑 등의 스님들과 金末乙祥과 金松乙伊 兩主를 비롯한 민간의 시주로 진행되었고 勸善에는 慧澄, 坦珠, 允悟, 雪岑 등이 참여하였다.

* 권말 간기: 萬曆元年 癸酉 孟夏 初八日 全羅道 潭陽府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3.10 大藏一覽集 (1573년)

이 책은 전체 10권 5책으로 구성된 목판본으로 내용과 체제가 동일한 다른 번각의 판본이 동국대 도서관, 송광사 정보박물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半匡은 17.5×12.8cm, 界線이 있고 판면은 11행 21자에 작은 글자는 두 줄로 배열하였고 판심의 어미형태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책 저본에 기록된 권말 발문은 1472년 6월에 金守溫이 쓴 것이며 이 판본의 간기는 宣祖 6년 (1573) 4월 8일에 간행된 것으로 앞의 『蒙山和尚法語略錄』,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언해)』와 같이 출판되었다. 발문과 간기의 관계로 볼 때 이 판본은 중앙에서 간행되었던 판본을 그대로 번각하여 간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권말에서 확인되는 각수는 談峻, 德裕, 道識, 道彥, 法雲, 上榮, 上峯, 性明, 性通, 守行, 靈修, 靈玉, 靈川, 玉軒, 元印, 隱庵, 應浩, 義玉, 義元, 義軒, 印眞, 一正, 正云, 祖能, 祖仁, 志崇, 智揖, 處敬, 天正, 坦然, 玄修, 惠明, 萬熙, 應眞 등이다.

그 중 祖能, 處敬, 坦然 등은 다른 판본을 간행할 때도 참여한 기록이 있다.

이 책은 송대의 학승으로 寧德(福建)人 陳實이 편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불교에 귀의하여 힘들게 대장경을 공부하면서 그 번잡함을 정리하고 필요한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여러 경전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대장일람집』이라는 서명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먼저 ‘門目總類’라는 제목 아래 각 품의 이름과 권수 및 품수 등을 제시하였다. 전체 경전을 불교의 주요 교리에 따라 8部門으로 나눈 뒤 다시 60품으로 세분하고 각 부문은 그 내용을 七言詩로 설명하였다. 매 품은 다시 세분하여 역시 七言詩 형식으로 제목을 달고 인용한 경전명을 수록하였다. 수록된 문목종류는 내용상 가장 단위로서 품이나 그 속에 포함된 소제목보다 더 세분된 단위인 1,181개의 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제의 구성상 8部門의 마지막 품인 제60 ‘流通品’까지 각 품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전을 제시하고 있다.

* 권말 간기: 萬曆元年 癸酉 四月初八日 全羅道 潭陽府 秋月山 龍泉寺 新刊

3.11 諸佛菩薩腹藏壇儀式 造像經 (1575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조상경』은 전남 담양 龍泉寺板의 『大藏一覽經』(1575), 전남 고흥 八影山 楞伽寺板의 『觀像儀軌』(1697), 평안도 용강 華藏寺板의 『華嚴造像』(1720), 경북 상주 金龍寺板(1746)과 금강산 楡岾寺板(1824) 등 刊本 5종과 筆寫記가 없는 필사본 『조상경』 몇 점이 알려져 있다.

그 중 간행연대가 제일 빠른 용천사판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전들의 번역시기와 고려에 유입된 시기를 정리하여 보면, 『대장일람집』에 들어있는 조상품은 12세기 중엽 중국에서 판각되어 고려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존 자료로는 고려시대 간행본과 1473년 인수대비 발원으로 판각된 『대장일람집』을 들 수 있다. 또 『妙吉祥大教王經』은 1062년 이후 번역되어 고려로 수입되었다고 보이며, 『三悉地壇釋』은 9~10세기경 고려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복장품 이입의 의례라 할 수 있는 『조상경』은 후대인들이 불상의 공덕을 언급한 여러 경전에서 인용하여 그 연원을 『造像功德經』, 『觀佛三昧經』, 『諸經要集』, 『阿育王經』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그 관련성을 연결 지어 본 것으로 직접적인 불상복장에 대한 연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한편 『조상경』은 중국 송대의 육조삼장 善無畏의 『金剛頂經』에 수록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는 남아있지 않고 현존의 자료로 볼 때는 송대 陳實의 『大藏一覽集』, 慈賢의 『妙吉祥大教王經』(妙吉祥平等秘密最上觀門大教王經), 善無畏의 『三悉地壇釋』(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出三界秘密三身佛果三種悉地眞言儀軌), 施護의 『大明觀相儀軌』 등 네 가지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1575년 龍泉寺에서 간행된 『조상경』은 현존하는 最古本으로 『조상경』의 초기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1冊 38장으로 구성된 木板本 5針眼의 線裝本이다. 제1장은 “諸佛菩薩腹藏壇儀式”으로 시작되며 본문의 판식은 四周單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0.9cm, 가로 15.3cm이며 界線이 있고 9行 20字의 배열에 어미는 대부분 上下內向黑魚尾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간혹 흑어미 안에 각수명을 새긴 것도 있으며 판심제는 1~27장까지는 ‘腹’이며 나머지는 ‘造像’이다.

이 책의 간행사항은 “諸佛菩薩腹藏壇儀式” 뒤에 宣祖 8년(1575) 2월에 판각한 것으로 刻手에는 道彦, 上榮, 斗雲, 祖惠, 法堅이 참여하였고, 別座에는 智熙, 供養主는 信云, 勸納은 慧澄이 맡았다. 이들 중 道彦, 上榮은 1573년 같은 사찰에서 간행된 『大藏一覽集』의 판각에도 참여하였고, 祖惠 또한 1575년의 『念佛作法』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또 권말 면지에 ‘比丘泰華 保體, 比丘富仁 保體, 比丘柄仟 保體’라는 목서가 있어 인출할 때의 시주자로 추정된다.

『조상경』에 수록된 내용은 諸佛菩薩腹藏壇儀式,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所入諸色, 妙吉祥大教王經, 三室地壇釋, 佛菩薩點筆方, 准提九字兼義解, 列金剛王, 大藏一覽經 造像品 十四則의 9항목이다.

『대장일람집』에 들어 있는 조상품은 복장의식과는 실질적인 관계없이 조상하는 인연을 설명하고 있고, 『묘길상대교왕경』은 복장물의 물목이며, 『삼실지단석』은 불상의 뱃속에 복장물을 넣는 의식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

『조상경』 내용 중 “제불보살복장단의식”에서는 불상 봉안법과 방위 등의 체계를 비롯하여 五境 · 五藥 · 五香 · 五穀 · 五寶瓶 · 五供養을 열거하고, 이어서 腹藏 넣는 방법을 五色彩 · 五色絲 · 五色花 · 五菩提樹葉 · 五吉祥草 · 五傘蓋의 순서로 설명하였다. 寶篋眞言을 悉曇章 · 한글 · 漢字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한편 『조상경』이라는 정식 명칭이 책의 서문이나 판심 등에 처음 사용된 예는 조선시대의 1824년

유점사본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간행본이며, 그 이전에는 관용적으로 ‘조상경’이라 쓰거나 또는 ‘대장일람경’이라 불리며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권말 간기: 萬曆三年 乙亥 仲春上澣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板

3.12 念佛作法 (1575년)

이 책은 전체가 10장 1책의 분량으로 宣祖 8년(1575) 2월에 간행한 목판본이며 권말에는 『佛說阿彌陀經』 23張이 합철되어 있다. 책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고 본문은 10행 18자의 배열이며 版心の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에 版心題는 ‘念佛’, 권말제는 ‘念佛經’이다.

본문의 특징은 제5장부터 판각된 ‘**호사대**’, **호리니**와 같은 구절이 새겨져 있으며 권말에 출판과 관련된 인물의 기록으로 祖惠가 판각하고 版下の 글씨는 學眞이 썼으며 法連比丘가 勸化山人으로 전체의 일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간혹 판의 변란 밖에 ‘信元比丘(음각)’ 등이 새겨져 있다.

이 책의 내용은 念佛儀式으로서 淨口業眞言, 開經偈, 開法藏眞言, 千手陀羅尼, 道場偈, 懺悔偈, 往生發願偈, 彌陀讚, 結誦, 彌陀佛十相讚, 八菩薩名號, 懺悔偈, 回向偈, 往生偈 등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으며 권수에는 필사된 ‘神妙章句陀羅尼’가 있고 권말에 鳩摩羅什이 번역한 『佛說阿彌陀經』 23張이 上圖下文과 본문은 8행의 형식으로 판각되어 있다. 이 『염불작법』의 내용은 『念佛普勸文』에도 도판 없이 본문만 수록되어 있다. 습간된 두 종의 불서는 서로 판면의 크기와 형식이 다르다.

* 권말 간기: 萬曆三年 乙亥 仲春上澣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3.13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1576년)

이 책은 사찰에서 대중이 묵언으로 바루공양을 할 때의 默言作法과 食堂作法의 절차를 싣고 있는 내용으로 宣祖 9년(1576)에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界線은 없고 본문은 8행 17자의 체제이며 판심은 上下內向黑魚尾이다.

내용 중 묵언작법은 밥그릇인 바루를 내리는 下鉢偈, 바루를 대중이 돌리는 回鉢偈, 바루를 펼치는 展鉢偈, 그리고 十念과 이어 식사를 하라는 의미의 唱食偈, 식사를 하는 受食偈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佛三身眞言 · 法三藏眞言 · 僧三僧眞言 · 戒藏眞言 · 定決道眞言 · 慧徹修眞言 등 6대 진언의 절차를 수록하였다.

그밖에 식당작법에 소요되는 제반 의식 절차와 이를 담당하는 승려의 배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묵언작법이 바루공양시에 행하는 상용의례인 반면 식당작법은 식사 그 자체의 의미를 의식화한 것으로 靈山齋가 끝난 뒤에 행하는 대중공양의 의미를 의식화한 것이다.

* 권말 간기: 萬曆四年 丙子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3.14 佛說阿彌陀經 (1577년)

이 책은 宣祖 10년(1577)에 간행된 목판본 1책이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半匡의 크기는 22.6×17.1cm이며 본문에 계선은 없다. 상하로 도판과 본문이 구분된 병렬체제이며 본문은 7, 8행이 반복되고 글자는 7자로 배열되어 있다. 판심에는 어미가 없고 판심제는 ‘彌陀’이며 그 아래 張次가 있다. 판의 우측 변란 밖에 시주자 위치에 墨等이 많으나 간혹 ‘施主 崔元實’ 등의 기록이 있고 제18장의 變相 하단에는 ‘法云 刀’라는 각수명이 있다.

책의 특징인 판화는 임란전부터의 앞서 간행된 판본들과는 다른 底本을 사용하여 판각한 것으로 이미 박도화의 연구²⁸⁾에서 용천사본의 판화는 덕주사판 계열의 판화들보다 더 설명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장면 사이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연이어 판각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운문의 표현과 배경처리, 인물의 표정묘사 등이 더욱 유연하고 경직되지 않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목의 표시도 음각으로 처리되어 다른 판본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용천사판에는 25개의 변상에 이어 阿彌陀三尊來迎圖와 龍船圖가 덧붙여져 있다.

이 龍船接引圖는 왕생자들이 아미타불의 인도에 따라 용선을 타고 극락왕생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특히 용천사본 阿彌陀經의 용선도는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전기의 것으로 이 구성을 따른 불화로는 신록사 용선접인도(19세기) 및 안양암의 것을 들 수 있으나, 17~18세기의 것은 아직 알려진 사례가 없다.

이 판본은 앞에서 언급한 『念佛作法』과 합쳐져 장정된 것이 고려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고려대 소장 판본의 권말에는 ‘佛說寶樓閣根本眞言, 寶樓閣隨心呪, 無量壽佛說往生淨土呪, 阿彌陀心呪, 決定往生眞言, 佛說決定往生眞言’이 있고 이어 竹庵比丘 可觀이 쓴 이 경의 유래와 대중들이 정토에 태어나기 위하여 이 경과 주문을 어떻게 외우고 지녀야 하는지를 설명한 敬題가 있다.

마지막 장에는 시주자 명단으로 ‘申大仁 二主’를 포함한 53명을 수록하였다. 이 때 인명 뒤에 대부분 표기된 ‘二主’와 ‘二位’는 일반적으로는 ‘兩主’로 표기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추정된다.

* 권말 간기: (陰刻) 萬曆五年 丁丑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3.15 六祖大師法寶壇經 (1578년)

이 책은 六祖 慧能이 述하고 法海가 모아 편집한 책으로 목판본 1책으로 간행되었다.

책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半匡은 16.3×12cm로 본문 중에는 界線이 없고 9행 17자의 배열이며 판심부의 어미형태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28) 박도화, “조선 전반기 불경 판화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서문의 기록은 ‘至元二十七年庚寅(1290)歲仲春日敍’로 중국 底本の 기록이 있고 권말의 간기는 宣祖 11년(1578) 12월에 간행한 것으로 같은 해 5월의 『佛說觀無量壽經』에 이어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禪宗의 역사에서 六代祖였던 慧能의 修道와 깨달음의 과정을 문인들을 위해 설법하는 형식의 자서전적 일대기로 祖師語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동북아 불교계에서는 경전과 같이 중요시되어 왔다.

* 권말 간기: 萬曆六年 戊寅 十二月日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3.16 佛說觀無量壽經 (1578년)

이 책은 목판으로 간행된 1책으로 불교 정토신앙의 근본경전 중 하나이며 『觀無量壽佛經』 또는 『十六觀經』·『觀經』이라고도 한다. 책의 성립은 424년에 譯經僧 璽良耶舍가 한역한 것이 전하고 있으며, 『阿彌陀經』·『無量壽經』과 함께 淨土三部經의 하나로 우리나라 정토신앙의 중심 경전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 경의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16觀法은 지는 해를 보고 극락세계를 관하는 日想觀, 극락세계의 대지가 수면이나 얼음처럼 평탄함을 관하는 水想觀 등의 16가지 관법으로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정토신앙이 성행하면서 널리 행하여졌다.

* 권말 간기: 萬曆六年 戊寅 仲夏中元 潭陽府 龍泉寺 開刊

3.17 菩提達磨四行論 (1579년)

『菩提達磨四行論』은 曇林이 스승인 달마대사의 어록을 정리하여 편집한 『達磨論』에 후대 선사들의 어록 문답을 추가한 것이다. 이 책은 二祖 慧可(487-593)에서 五祖 弘忍(601-674) 이전까지 달마 문하 초기 선종 선사들의 선법과 활동을 전하는 불교 사상사 자료이다. 책의 1차 편집자인 담림은 달마의 제자이며 생물연대는 알려진 바가 없고 남북조 말에서 隋代에 걸쳐 살았으며 주요 활동시기는 6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책의 전체는 46장 1책의 체제이며 관식은 四周單邊에 본문은 10행 14자로 배열되어 있다. 이 관식은 세조때의 간경도감본과 달라서 번각한 것이 아니라 새로 등재본을 쓰고 새긴 것으로 관심제는 ‘四行論’이다. 권말의 간기를 통하여 宣祖 12년(1579) 전라도 潭陽府의 용천사에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3종의 국내 간본은 世祖 8년(1464)과 1569년 무등산 안심사에서 간행된 것, 1908년에 범어사에서 번각된 것(이하 禪門撮要本)이 있으며 그밖에 중국의 돈황에서 9종의 사본이 발견되었다.

이 책의 출판과 관련된 기록으로 偈의 말미에 雪崑이 書寫와 校正을 담당했고, 판을 새긴 사람은 隱庵이며, 大施主는 慧希이고, 化主는 法連이라 밝혀 두었다. 특히 법련은 비슷한 시기에 龍泉寺에

서 간행된 대부분의 불경 간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문의 변란 우측 하단에 시주자가 새겨져 있는데, 8장 앞면에 ‘金億只’, 9장 앞면에 ‘天敏’, 26장 앞면에 ‘銀茲’, 42장 앞면에 ‘主月’, 44장 앞면에 ‘惠熙’가 시주자로 나타나 있다. 권말에는 ‘龍門佛眼禪師坐禪偈’의 기록이 있는데, 1464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菩提達磨四行論』의 권말에는 ‘龍門佛眼達摩四行論’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佛眼禪師(1183-1260)의 법명은 慧開로 송대 臨濟宗 楊岐派 승려이며 1246년 궁중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황제로부터 불안전사라는 호를 받았다.

내용 중의 특징은 四行의 수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第一入道修行綱要門”, “第二論主義樂差別門”, “第三一相平等無別門”, “第四談論空無破執門”, “第五絕像離說懸虛門” 부터 “第四十三心德自在無得門”, “第四十四隨心諸法有無門”에 이르기까지 모두 4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어서 “龍門佛眼禪師坐禪偈”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제1문만이 달마가 지은 것이고, 나머지 43문은 후인들이 부연 설명한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선의 종지와 깨달음의 방법 중 초기 선종의 기본 가르침은 ‘藉教悟宗’으로 교학을 부정하지 않고 교에 의하여 자각할 것을 말하였는데, 教를 통해 理法의 요지에 들어가 깨달음에 이르는 즉 교에 의지하여 종을 깨닫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理入’과 ‘行入’은 달마의 선사상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고 그 중 行入에 해당되는 四行은 네 가지의 생활방식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報怨行: 수행자가 고통을 당할 때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과보라고 생각하여 남을 원망하지 않음
 둘째, 隨緣行: 즐거움과 괴로움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소멸하므로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순응함
 셋째, 無所求行: 밖에서 구하고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그치고,空을 깨달아 탐욕과 집착을 버림
 넷째, 稱法行: 자신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다는 空의 입장에서, 그 실천에 합한 六波羅蜜을 닦음

『菩提達磨四行論』의 현존 판본 중 가장 빠른 것은 세조연간에 간경도감에서 판각·유포된 것으로, 일본 積翠軒文庫와 장서가 프랭크 홀리(Frank Hawley)를 거쳐 일본의 천리대학 도서관에 1958년 경 수장된 것이 있다. 그 서지 사항은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日本 天理大學 天理圖書館 所藏 韓國本(2005)』에 의하면, 전체 22장이며 版心은 ‘四行論’이고 반곽의 크기는 18.5×11.5cm이다. 판식은 左右雙邊에 간혹 單邊도 혼입되어 있고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10행 21자로 배열되어 있다. 본문 중 고려 태조의 諱인 ‘建’자가 피휘되어 있으므로 그 저본은 고려의 유통본으로 추정되지만 敦煌寫本에 있는 서문은 보이지 않는다.

간행의 기록은 ‘天順八年甲申歲 朝鮮國刊經都監 奉教於全羅道 南原府重修/宣務郎 前典牲署 令 臣韓叔倫 書’로서 1464년(세조 10)에 전라도 南原府에서 韓叔倫의 글씨로 등재본을 만들어 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말에는 『龍門佛眼達磨四行論』이 附刻되어 있으며, ‘寶玲文庫’, ‘積翠軒文庫’의 印記가 있다. 일본의 椎名宏雄는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54호(1996)에 수록

된 “天順本 菩提達磨四行論”이라는 논문에서 『菩提達磨四行論』의 원본은 고려시대에 재판집되어 최초로 관각되었고, 禪門撮要本은 천순본에서 그 전반부 대다수를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며, 그전까지 발견된 돈황에서 출토된 여러 사본들보다 더 完整된 판본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후대에 간행된 판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鏡虛 惺牛(1849-1912)가 1908년에 선종의 주요 법문을 함록하여 범어사에서 편찬한 『禪門撮要』에 실린 『보리달마사행론』으로 1908년 범어사에서 관각하였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상권에는 달마의 『血脈論』, 『觀心論』, 『菩提達磨四行論』과 제5조인 弘忍(601-674)의 『最上乘論』 등 중국 고승들의 저술이 실려 있고, 하권에는 知訥(1158-1210)의 『修心訣』, 『真心直說』, 『勸修定慧結社文』, 『看話決疑論』과 天頤의 『禪門寶藏錄』 등 한국 고승들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

* 권말 간기: 萬曆七年 己卯 五月中元 潭陽府 龍泉 開板

3.18 起身本末五重 · 最上乘論 (1582년)

3.18.1 起身本末五重

이 책의 형태는 오침안 선장의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며 본문의 두 부분 중 앞의 『起信本末五重』은 음각 인쇄이나 『最上乘論』은 일반적인 양각의 목판본 인쇄이다. 『起信論』은 대승불교의 개론서로, 『大乘起信論』이라고도 한다.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 등 華嚴宗 · 天台宗 · 禪 · 淨土宗 · 眞言宗 등의 여러 종파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한 불교발전에 여러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元曉가 쓴 『대승기신론소』가 유명하다. 또한 『最上乘論』은 唐의 弘忍禪師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청정한 佛性を 확인해서 잘 지키는 守心을 강조한 책이다.

판식은 四周單邊으로 계선은 없고, 세로 21.7cm, 가로 17.2cm의 半廓에 7행 10자로 배자되어 있으며 註는 雙行이다. 판심부에는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와 大黑口가 나타난다. 본문 앞 부분의 시작은 ‘依起信論約諸染法從本’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차례로 5단을 구분하여 설명을 대신하고 있다.

- [1重] 初依 一心爲本源
- [2重] 二依 一心開二門 : 心眞如門, 心生滅門
- [3重] 三依 此識明二義 : 覺義, 不覺義
- [4重] 四依 後義生三細 : 業相, 轉相, 現相
- [5重] 五依 最後生六麁 : 智相, 相續相, 執取相, 計名字相, 起業相, 業繫苦相

이와 같이 시작과 끝의 相이 일어남에는 다섯 단계가 있음을 科文 형식으로 제시하였고 이 첫 장의 표에 의거하여 이후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설명과 주석을 한자로 된 토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五重은 本源인 一心(1重)에서 眞如門과 生滅門(2重)으로 나누어지고 生滅門은 다시 覺義와 不覺義(3重)로, 不覺義는 業相, 轉相, 現相(4重)으로, 現相은 智相, 相續相, 執取相, 計名字相, 起業相, 業繫苦相(5重)으로 나누어 5단으로 도식하고 科文처럼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는 짧은 분량의 『訓蒙要鈔』와 합철되어 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규장각에는 警戒文, 佛說金沙論과 합철하여 간행한 것이 있고 장흥 寶林寺 사천왕불복장에서 발견된 『誠初心學人文』 권말의 『訓蒙要鈔』에는 ‘起信論本末五重’이라 시작하고 관심에는 ‘五重’이라 하였다.

책의 간기는 앞뒤의 다른 판본에 각기 수록되어 앞의 『起信本末五重』은 宣祖 15년(1582)에 판각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은 板의 시주에는 金末叱同 부부와 寺中에서는 海淨과 信律, 別座는 戒修, 化主는 法連이었고 登梓本의 글씨는 學眞이 쓰고 慧澄이 교정하였으며 戒祖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판각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 책의 印出에 소요되는 經紙의 시주는 金光胤 부부가 하였고 飯頭는 淨元이 맡았다. 등재본의 글씨를 쓴 學眞은 1575년에도 같은 용천사에서 『念佛作法』을 간행할 때도 등재본의 서사를 담당하였다.

* 권말 간기: 萬曆十年 壬午 孟秋既望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3.18.2 最上乘論

合刊된 뒷부분 12장의 『最上乘論』은 달마의 법을 5대로 이은 唐代의 弘忍이 지은 것으로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자신의 청정한 佛性を 확인하여 잘 지켜야 한다는 守心을 강조한 책이다. 동황에서 출토된 『蕪州忍和尚導凡趣聖悟解脫宗修心要論』의 내용과 같으며 이 때 忍和尚은 흥인이며 ‘修心要論’은 한국에서 『最上乘論』으로 전해져 왔다.

책의 권수제 다음 행에는 ‘第五祖 弘忍禪師 述’이라는 저자표시가 있으며 판식은 앞부분의 『起信本末五重』과 달리 양각의 판각과 10행 14자로 배열되어 있고 판식에 계선이 없으며 판심제는 ‘最上論’이다. 간기는 앞의 起信本末五重과 간행처는 같지만 간행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출판 작업에 참여한 인물 중에서 板은 金末叱同이 시주하고 眞應이 새겼으며, 證明에는 慧澄, 시주에는 玉淳, 공양주는 妙仁이 맡았으며 化主로 法連이 참여하였다. 판심 아래 黑魚尾 중에는 刻手 표시를 한글로 ‘진웅(제3, 4장), 진’으로 음각한 부분도 있다.

이 두 판본의 간행사항을 비교할 때 판의 시주자가 같고 화주가 法連으로 같으며 慧澄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刻手는 서로 다르다.

* 권말 간기: 全羅道 潭陽府 秋月山 龍泉寺開板

3.19 禪源諸詮集都序 (1582년)

이 책은 宣祖 15年(1582)에 2권 1책으로 간행한 책으로 刻手²⁹⁾는 戒祖, 法見, 坦然이 참여한 목판본이다.

『禪源諸詮集都序』의 성립은 중국 화엄종의 제5조인 圭峰 宗密(780-841)이 자신의 『禪源諸詮集』 101권에 대하여 서문을 지은 것으로 『선원제전집』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하여 『선원제전집』의 내용을 개괄할 수 있다. 『禪源諸詮集都序』는 한국에서는 禪教兼修 전통의 흐름아래 간행과 유통이 많아져 조선 중기 이후는 강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四集科의 한 과목이 되었다.

수록된 주요 내용은 상권에 五種禪의 분류와 이 책을 지은 목적, 禪宗의 三門과 教宗의 三門을 대비하였고, 하권에서는 3門을 구체적으로 분석·설명하였다. 먼저 5종선을 外道禪·凡夫禪·小乘禪·大乘禪·最上乘禪으로 분류, 설명하였다. 또 선종의 3門에 대하여는 선을 息忘修心宗·泯絕無寄宗·卽顯心性宗으로 나누어 해설하고 이를 교종의 3教인 密意依性說相教·密意破相顯性教·顯示眞心卽性教와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하권에서는 3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心佛과 禪教 모두가 부처를 이루는 行門임을 밝히면서 세부적으로 頓漸二義·一眞心體·阿賴耶識, 覺과 不覺, 五十重還滅次第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 권말 간기: 萬曆十年 壬午 [月日] 全羅道 潭陽 龍泉寺 開刊

3.20 圓頓成佛論 (1583년)

이 책은 고려 중기의 고승인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의 저술로서 宣祖 16年(1583) 7월에 목판본 1책으로 권말에 같은 저자가 쓴 “看話決疑論”을 포함하여 간행되었다. 책의 권말에는 1215년의 無衣子 慧謙의 발문과 崔沆의 誌文이 있다.

책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고 판면에는 9행 16자의 배열을 하였으며 판심부의 어미형태는 上下內向花紋黑魚尾이다. 이 책의 내용은 지눌이 禪教의 근원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화엄사상의 대의를 밝힌 것이다. 지눌은 李通玄의 『華嚴論』 40권을 3권으로 절요하여 저술한 뒤 이의 宗旨를 다시 한 책으로 약술한 것이다. 본문의 체제는 문답식으로 그 핵심은 初發心の 信位에서 無明分別의 衆生心이 곧 不動智佛임을 깨닫고, 十信初位에 들어가서 만행을 닦아 궁극에는 成佛位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합철되어 있는 “看話決疑論”은 이론과 사유에서 벗어난 마음의 본바탕으로 들어가는 방편으로서 간화선을 제시하여 어떤 화두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고, 그것을 궁구하여 마침내 그 의심이 타파되면서 삼매를 일시에 체득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권말 간기: 萬曆十一年 癸未 七月日 秋月山 龍泉寺 開刊

29) 藤本行夫(2007), 130.

3.21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593년)

이 책은 불분권 1책 형태의 목판본으로 책의 편자는 竹庵이며 표지의 서명은 ‘中禮文’이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半匡의 크기는 28×19.2cm이며 본문 중 界線이 있고 8행 14자의 배열에 小字는 雙行으로 되어 있다. 판심 중 版口는 上下白口에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판각은 약 20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출판 사업 중 거의 끝 무렵으로 宣祖 26년(1593) 3월이지만 책을 판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1년전 시작된 임진왜란의 영향이 당시 이곳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권말 간기: 萬曆二十一年 癸巳 三月上旬畢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 開刊

3.22 月峯集 (1703년)

이 책은 龍湫寺라는 寺名으로 肅宗 29년(1703)에 禪師 宗敏 등이 시주하고, 등재본은 유학 鄭[]獮이 썼으며, 刊刻은 太初가 담당하여 판각, 간행하였다. 저자인 月峯 策憲(1623-?)은 경상도 星州 출생으로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松坡, 翠岩, 碧巖, 義謹 등에게 수학하였으며 경상도 지역 사찰을 遊歷하였다. 월봉 책헌의 문집이 용천사에서 간행된 배경에는 그와 용천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逍遙堂이 임란후 복구하였으나 세월이 경과하여 다시 전각이 퇴락하므로 이 때 월봉이 경상도 頭流에서 찾아와 법당을 수리하고 설법을 펼치니 당시 뿐 아니라 그 후에도 대중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는 「無竟集」의 “秋月山龍湫寺事蹟詞引”의 기록이 있다. 또 이 문집이 용추사에서 간행되었고 새겨진 각 판에서 대부분 제자라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월봉이 이곳에서 주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에서는 마음과 禪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참선 위주의 수행을 비판하고 禪, 教와 淨土思想과 관련된 念佛信仰을 강조하였다. 특징 중에는 매 장마다 우측에 ‘弟子 大功德主[]’라는 시주자명이 마지막 장까지 새겨져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표기 중 弟子, 上佐, 舍弟로 구분한 것과 在家佛者 중의 弟子를 구분하여 기록한 점도 다른 불서들의 용례들과 차이가 있다.

한편 권말의 내용을 통하여 「月峯集」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당시 용추사 주지인 處淨이 三綱의 소임을 맡았고, 版下本을 書寫한 인물은 鄭[]獮이며 太初와 再淸이 각수로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권말의 간기와 간행에 참여한 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 권말 간기: 康熙四十二年 癸未 二月日 全羅道 潭陽 北嶺 秋月山 龍湫寺 開刊

* 通政 善祐/禪師 []信/禪師 宗敏/三綱秩/住持 處淨/三寶 []尙/持事 [思]忍/書記 西卓

* 刊刻 太初, 再淸/供養主 時策, 以成/別座 禪侃/大功德主 海雲/書寫 儒學 鄭[]獮

3.23 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燄鬘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摠持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1743년)

이 다라니는 수지독송 및 베껴쓰는 공덕에 대하여 설한 것으로 不空이 번역한 것이다.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와 함께 隨求陀羅尼로 지칭되며, 앞면에 다라니명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본문의 내용이 범자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다라니의 내용 이외에 ‘准提陀羅尼·六字大明王眞言·淨法界眞’ 등의 진언이 확인된다. 본 다라니는 1743년 담양 龍湫寺에서 간행된 것으로 현재 도립사에 1권이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판식을 보면 四周單邊에 계선이 있으며 행수 19행이며 글자수는 일정하지 않고, 전체 크기는 19.6cm×35.4cm이며 앞면과 뒷면에 간기가 있다.³⁰⁾

* 앞면 간기: 乾隆癸亥[年] 正月 潭陽 北嶺 龍湫寺 開板

* 뒷면 간기: 乾隆癸亥年 孟春日 潭陽 龍湫寺 開板

3.24 大方廣佛華嚴經疏鈔 卷三十六之二 (1775년)

이 책은 實叉難陀(唐)가 번역하고 澄觀(唐)이 撰述한 華嚴經 章疏로서 전체는 90권으로 그 구성은 『華嚴玄談』 8권과 『華嚴疏鈔』 80권, 『普賢行願品疏』와 『釐合凡例音釋』 각 1책을 합하여 90권 80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본은 1625년 葉祺胤이 편찬하여 가흥대장경에 편입된 것이다.

이 책은 肅宗 7년(1681)에 호남의 荏子島에 표류한 중국배에서 수습한 중국의 嘉興大藏經의 일부이며 이후 영남과 호남의 사찰에서 번각된 것이다. 이때 栢庵性聰(1631-1700)에 의하여 수습된 경전은 여러 사찰에 나누어져 分刊의 형태로 이를 번각이나 개간하였다. 당시 梵魚寺, 松廣寺, 大源庵 등 여러 사찰에서 간행하여 澄光寺에 목판을 안치하였지만 1770년 澄光寺의 화재로 목판이 불타버렸다. 이후 덕유산 靈覺寺의 雪坡尙彦(1707-1791)이 지리산 인근의 臺岩精舍, 內院精寺 등에서 舊本의 오류부분을 바로 잡아 1773년 봄에서 1775년 여름까지 다시 복각을 완성하였다. 이때의 예로 권36의 권말에 “44葉 17行의 ‘治其邪見’ 4자를 보완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당시에 참여한 사찰 중의 일부를 이 책의 卷36之2(十地品第26之3下)末에 의하여 살펴보면,

全羅各寺 道甲寺 大屯寺 寶林寺 天冠寺 開興寺 龍泉寺 龍興寺 峯岬寺 雙溪寺 定水寺
美黃寺 佛會寺 法泉寺 楞加寺 佛岬寺 金塔寺 雙峯寺 萬德寺 水清寺 開天寺
化士 頓平廣募衆緣助刊此經...崔富旺 舍堂定日法順 尼天貞母鄭氏, 施主秩 永宜 등 다수
都監 大榮, 持殿 祐印, 三綱 寬澤 幸白 快文, 校証 法賢, 住持 卓演, 別坐 策華,
供養主 性還 最眞, [其他 刻手] 比丘漢聰 등 다수

30)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문화재』; 2014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3 전라북도·전라남도 1 (대전: 문화재청·서울: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256-257.

등으로 龍泉寺가 어느 규모만큼 참여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간행본 외에도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판본을 인출한 기록도 있다. 해남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華嚴懸談會玄記』 卷23-24의 권말에는 목서로 인출 관련 기록을 남겨두었다. 대상이 되는 이 책의 성립은 唐代的 淸涼澄觀이 쓴 『華嚴玄談』을 元代的 普瑞가 註釋한 것으로 역시 중국의 嘉興大藏經의 일부이며 전체는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華嚴疏鈔』와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쳐 桂坡性能이 주도하여 1695년에 지리산 雙溪寺에서 번각한 것이다. 책의 판식은 四周雙邊에 10행 20자로 배열하였고 판심에는 黑口와 上下1-2葉花紋黑魚尾가 있다. 출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卷24末에는 ‘朴有章施牛畜助刊’과 뒤표지 내면에 印經大施主 趙天運兩主 외 6건, 緣化會壯 白鳳比丘, 印經兼內外都察任 關豁, 大功德主 比丘尼 密訓, 來往僧 就勤比丘라는 기록이 있다. 이와 더불어 목서로 ‘乾隆六年辛酉(1741) 八月[]子 秋月山 龍湫寺’라는 인출의 기록이 있다.

4. 판각된 口訣本 3종

앞서 살펴본 龍泉寺 간행의 여러 책은 주로 임진왜란 직전에 집중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 간행된 자료를 번각한 것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구결을 달아서 간행하는 등 언해의 전 단계 작업에 관심이 많이 기울인 점이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당시까지 알려진 佛書 중 중앙의 언해본을 제외하고 구결을 달아서 판각한 자료는 『地藏菩薩本願經』 외에는 없었으며 특히 『誠初心學人文』의 경우가 자료의 출현 이후에 언해본이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다음 3종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板刻된 佛家口訣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大乘起信論疏 (1572년)

사용된 구결은 대체로 漢字略體字의 형태이며 우측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의 해석이 가능하거나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경우는 좌우에 동시에 기입하였다. 또 다음 예와 같이 특별한 경우 釋讀口訣의 잔형을 보이고 있다. 欄上에 기록된 토는 본문에서는 좌측에 표시되어 있다.

- 예) 上之二 12뒤6행 : 以有不覺妄想心故又 能知 ヽ ㄷ 7 名義 乙 爲說眞覺 ㄴ ㄴ ㄷ ㄷ
 上之二 14뒤2행 : 一者 智相 ㄷ 依於境界 ㄴ 3 心起 ㄴ 3 分 ㄴ ㄴ 7 別 愛與不愛 乙 故 ㄴ
 下之一 2 뒤9행 : 一者 業識根本熏習 ㄷ 能受 ㄴ ㄴ 7 阿羅漢辟支 ㄴ ㄴ 一切善薩生滅苦 ㄷ 故 ㄴ

또 전체에 쓰이고 있는 자형은 대체로 52개(현대음으로 표기)로 나타난다.

ㄷ/거	口/고	古/고	ㄱ/은	ㅍ/은,는	乃/나	𐄂/나	又/노,로	匕/니	匕/나
ㅣ/다	ㅍ/대	大/대	丁/딩	刀/도	ㄱ/두	入/다,들	士/디	ㄷ/대	乙/을
ㅇ/라	ㅃ/로	ㄹ/리	ㅍ/리	ㄱ/마	ㄱ/며	久/며	ㅍ/면	ㅍ/샤	ㄷ/시
ㅍ/아	ㅍ/여	午/오	ㅍ/와	ㄴ/이	ㄴ/호	ㄴ/하	ㅍ/괴	七/스	ㄱ/마
ㅍ/다,들	ㅍ/라	ㅍ/스	ㅍ/어	ㅍ/의	ㅍ/히	ㅍ/가	ㅍ/호	未/미	士/사
ㅍ/샤	ㅍ/과								

이 중에서 고(口/古), ㄴ/은/는(ㄱ/ㅍ), 나(乃/𐄂), 대(ㅍ/大), 노/로(又/ㅃ), 호(ㅍ/ㄴ), 며(ㄱ/久), 마(ㄱ/ㄱ), 스(七/ㅍ), 라(ㅇ/ㅍ), 들/다(入/ㅍ) 등은 같은 음이거나 서로 통용하여 쓰이고 있다.

4.2 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自警文 (1572년)

4.2.1 誠初心學人文

이 판본 이후에 간행된 언해본을 통하여 이 구결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宣祖 10년(1577) 松廣寺本과 宣祖 16년(1583) 瑞峯寺本이 있다.

먼저 송광사본은 책의 내형식에서 원전을 大文으로 쓰고 한글로 독음을 표시하고 구결은 雙行, 小字의 한글로 표기하였고 다른 版本 등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發心修行章, 自警文이 합철되어 있다. 국어의 표기 면에서는 한자의 독음이 없는 곳도 있고 구결의 표기나 한글의 표기도 자리가 맞지 않는 곳이 많고 방점의 표기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또 △의 사용과 구개음화의 현상 역시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선행의 연구에서는 구개음화의 현상에 대하여서는 全羅道 방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宣祖 16년(1583) 瑞峯寺本에서는 그 책의 내형식이 원전을 大文으로 쓰고 한글로 독음을 표시하였으며 구결은 雙行, 小字의 한글로 표기하였다. 편철의 순서는 ‘發心修行章-誠初心學人文-自警文’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형태를 비교하면 原典大文의 分節, 翻譯, 漢子の 讀音表記 方法이 서로 다르고 방점과 ‘ㅇ’이 없어지고 구개음화의 현상 역시 보이지 않는다. 또 ‘△’ 역시 ‘ㅍ’으로 표기되어 전형적인 16세기말의 국어사 자료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책은 佛家에서의 수련을 위한 기본적인 책으로 앞의 2종 언해본보다 빠른 시기의 간행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4.2.2 初發心自警文 (1572년)

용천사본 「自警文」이 끝난 뒤 ‘此傳祖承土’라는 기록과 「蒙山和尚法語略錄」이 끝난 뒤 다시

‘此土傳本彥文’이라는 부기를 하여 여기에 나타난 기록에 근거를 한다면 『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自警文』은 앞선 고승으로부터 내려오던 토이며 『法語』와 『蒙山和尚法語略錄』에 붙인 토는 한글로 전해진 책에서 의거하였다는 것이 된다.

즉 현존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諺解된 1577년 이전의 板刻된 책이 없으므로 지리적으로 시대적으로 松廣寺本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松廣寺에서 ‘萬曆五年 丁丑夏 全羅道 曹溪山 松廣寺 留板’의 간기를 공통적으로 가진 두 종류의 『四法語, 蒙山和尚法語略錄』·『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自警文』이 龍泉寺本에 수록된 것 역시 우연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시기에 이미 구결의 형태가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口訣을 단다는 것이 諺解의 전단계 작업이고 또 諺解本보다 5년 빠른 시기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결을 기준으로 책을 간행한 것은 언해와의 연결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 자료에 나타난 구결자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48자(현대음으로 표기)로 나타난다.

為/하	古/고	去/거	伊/이	乎/호	里/리	眾/라	也/야	陽/ㄴ,은	大/대
奴/노,로	沙/샤	多/다	入/달,들	月/달,들	叱/스	尼/니	乙/을	羅/라	果/과
五/오	厓/에	西/서	言/언	威/저	亦/여	乎/호	代/대	那/나	印/인
弥/며	面/면	士/사	邑/비,읍	臥/와	寔/시	豆/두	午/오	瓜/마	地/디
丁/딩	阿/아	衣/애	多/다	了/료	刀/도	曳/예	於/어		

4.3 念佛作法 (1575년)

이 자료에 나타난 구결은 주로 眞言과 頌 등에는 없으며 주로 설명구를 중심으로 현토하고 있다. 그 사용된 차자표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42개(현대음으로 표기)로 정리된다.

去/거	乃/나	口/고	古/고	尸/ㄴ,은	奴/노,로	尼/니	刀/도	月/들,다	叱/스
為/하	匕/니	乙/을	又/로	眾/라	亦/여	寔/시	羅/라	阿/아	厓/에
曳/예	伊/이	五/오	尸/아	里/리	時/시	多/다	弥/며	面/면	舍/사
代/대	也/야	刀/도	可/가	於/어	스/라	乎/등	下/과	乎/호	ㄴ/나
利/리	未/미	士/사	ㄱ/면						

한편 구결본의 출현이라는 현상은 이러한 조선시대의 일반적 현상인 중앙으로부터 전래된 刊經都監 언해본을 번각한다든가 筆寫의 구결을 붙여서 학습에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방의 각 사찰에서 독자적인 출판물이 나타나는데 1세기가 소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중심지가 高麗의 知訥로부터 이어지는 호남의 남부 사찰들이 당시에는 불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이후 壬辰亂으로 피폐해진 이후에도 여러 名僧들이 사찰의 재건에 노력하였지만 전쟁 전의 佛經 刊行과

같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구결본과 언해본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언해로의 전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구결에 의한 독해의 정리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즉 16세기 중기부터의 구결자로 간행이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구결자가 기입된 것은 물론 이를 포함한 각종 佛書들이 1572년부터 1582년의 10년 동안 25종이나 간행되었다는 것은 당시 지방 불교사에서 龍泉寺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특히 法連比丘의 존재가 대부분의 언해나 구결본 간행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과 출판에 의한 기여가 18세기 울산의 雲興寺에서 활동하던 演熙比丘와 서로 비교할 만하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전라도 담양의 추월산 龍泉寺의 역사를 전존 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임란전의 특정 시기인 1570년부터 약 20여 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판본들에 대하여 그 서지적 특징 및 간행시기 그리고 출판에 관련된 기록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배경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그 대체적인 분석 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龍泉寺는 전라도 潭陽의 秋月山에 있던 사찰이며 임진란 이후에는 龍湫寺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두 명칭을 조선 후기까지 혼용하였던 기록들이 각종 문집들에 수록되어 있다.

둘째, 임란전의 기록은 세조때 해인사에서 대장경 50부를 인출하여 전국의 사찰에 보관시킬 때에 포함된 사찰로서 당시의 지역별 중심 사찰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1570년대 중반 柳希春의 『眉巖日記』에 의하여 추론하면 당시 사찰에 거주하고 있었던 승려는 대개 1백여 명에 가까운 큰 규모의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임란후에는 逍遙堂, 無竟, 月峯 등 차례로 여러 고승들의 노력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중건과 수리를 거듭하면서 법당과 殿閣, 불상, 탕화, 영정 등을 갖추어 수 있었다. 이 때 柳大海 등 여러 유력한 시주자들의 지원으로 18세기 후반에는 그 면모를 거의 회복할 수 있었다.

넷째, 사찰에서 간행된 佛書는 현존하는 것들은 대체로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法連 등을 주축으로 慧希 등이 대시주나 화주로 참여하고 上員과 處瓊, 祖能, 祖惠, 坦然 등이 각수, 義軒, 學眞 등이 書寫者, 金末乙祥과 金松乙伊 兩主 등 在家의 시주자들이 출판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刊行 佛書의 주제나 유형으로 볼 때 『造像經』이나 『念佛作法』 등 5종의 의식에 관련한 것과 『誠初心學人文』, 『初發心自警文』, 『發心修行章』, 『六祖大師法寶壇經』 등 수행기초와 관련된 주제, 『大乘起信論疏』, 『華嚴疏鈔』 등 주석서, 기타 기본 바탕과 관련되는 경전인 『妙法蓮華經』, 『圓覺經』이 있고 기타 이론서로 『禪源諸詮集都序』, 『圓頓成佛論』, 『最上乘論』, 『達磨大師四行論』 등과 승려문집으로서 『月峯集』 등이다.

여섯째, 간행 불서 중 특징적인 것으로 한자의 약체구결을 목판으로 새겨 간행한 『大乘起信論疏』와 한자체를 借字한 『念佛作法』 등은 전본이 많지 않으며, 『誠初心學人文』·『初發心自警文』·『發心修行章』에 현토된 구결은 이 책의 간행 이후 송광사에서 언해본이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譯解事業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중앙에서 활자로 간행되었던 『圓覺經』의 한글 구결본과 『蒙山和尚法語略錄』의 언해본도 번각되어 당시 큰 규모의 사찰로서 대중의 교육과 지역 불교문화의 진흥을 위한 체계를 세우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에 의하여 폐쇄된 이후 한동안은 사찰의 복구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일곱째, 18세기 이후의 출판활동에서 『月峯集』의 간행에는 제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華嚴疏鈔』의 간행에서는 영호남의 여러 사찰과 함께 일부의 관각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이후의 출판활동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현대에서는 전쟁 등으로 과거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담양 龍泉寺 또는 龍湫寺는 호남의 남쪽에서 조선전기로부터 중기까지 큰 규모의 사찰로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불서의 출판에서도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6세기 불교가 중앙에서 배척을 받는 가운데서도 송광사와 더불어 지방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 1570년 이후 임진왜란 전까지 집중된 시기에 25종(합철 포함)의 불서를 간행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였다. 이후 몇몇 고승들의 노력에 의한 복원도 진행되어 前代를 이어 왔지만 불교사회에 있어서 비중은 줄어들고 있었다. 비록 오늘날의 寺勢가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담양지역 또는 秋月山의 玉泉寺, 瀑布寺 등 여러 사찰에서의 출판활동을 함께 발굴하고 조명한다면 새로운 지역문화컨텐츠의 원형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 『東興備考』.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8.
 申景濬. 『旅菴遺稿』. 1910. 목활자본.
 柳希春. 『眉巖日記』. 목판본.
 李德懋. 『靑莊館全書』. 필사본.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1813. 목판본.
 子秀. 『無竟集』. 任實: 新興寺, 1718. 목판본.
 朝鮮總督府. 『官報』.
 太能. 『逍遙堂集』. 潭陽: 玉泉寺, 1800. 목판본.

[단행본 및 논문]

- 國立光州博物館 學藝研究室 編. 『潭陽 龍湫寺 기와가마터』. 光州: 國立光州博物館, 2001.
- 김상호. 『조선의 각수』.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2013.
- 金和英. “安靜寺所藏 萬曆八年銘 銅鐘.” 『考古美術』 제9권 제11호(통권100, 1968. 11). 494-495.
- 南權熙. “潭陽 龍泉寺 刊行 口訣本 3種의 書誌的 考察.” 『古書』 제7호.
- 藤本行夫. 『朝鮮朝刊本刻手名集』 第二版; 平成17・1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富山: 富山大學人文學部, 2007.
- 문화재청·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남도 II. 서울: 同廳, 同團, 2006.
- 佛敎史學會 編. 『韓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民族社, 1988.
- 사찰문화연구원 편. 『전통사찰총서』 7;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II.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1996.
- 李海燮. 『담양문헌집』. 광주: 담양향토문화연구회, 2004.
- 朝鮮總督府 內務府地方局 纂輯. 『(增補校正)朝鮮寺刹史料』 上·下. 서울: 高麗書林, 1986(影印本).
- 한보광·임종욱 편. 『한국문집소재 불교관련시문 자료집』 1-5. 서울: 이회문화사, 2007.
- 洪潤植. 『韓國佛敎史의 研究』. 서울: 敎文社, 1988.